

세계화시대와 相生倫理의 要請

安鍾沄*

目 次

- | | |
|-----------------|-----------------|
| I. 緒 論 | 2. 相生倫理論 |
| 1. 公正한 世界化를 위하여 | (1) 東西倫理論의 比較研究 |
| 2. 久遠의 人類平和의 길 | (2) 大巡思想과 相生倫理 |
| | (3) 現代와 相生倫理 |
| II. 本 論 | III. 結 論 |
| 1. 甌山과 大巡思想 | |

I. 緒 論

1. 公正한 世界化를 위하여

宇宙的인 次元에서 보면 地球는 모래알보다도 작은 微視體에 불과하고 生命體가 살고 있는 天體가 얼마나 많을 것인지 宇宙科學의 研究 부족으로 상상마저 불허하는 실정이다.

* 공주대 명예교수. 철학박사.

축소하여 地球의 起源도 정확하게 알길이 없으며 人類의 歷史도 언제부터 라고 劃을 단정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조그마한 地球에 58億의 人類가 살고 있다하니 人生 個個人的 측면에 서 보면 또 얼마나 작은 微生物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常識으로는 微生物은 微視世界의 極微生命體라 알고있으나 巨視世界에서는 人生이 바로 微生物인 것이다.

知的인 側面에서 따지자면 이처럼 微生物的 人生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 한들 얼마나 안다 하겠으며, 開發한 業績으로서의 歷史內容이 있다해도 豊富함과 貧弱함 그리고 先進성과 後進성을 어디에 基準하여 評價할 것인가?

地球人의 歷史를 아무리 長久하게 소급하여도 一萬年 그 이상을 상회할 수 없는 노릇, 物的 證據가 미비하여 그 이하로 歷史期를 인정한다면 지극 히 淺近하다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悠遠한 未來史的 觀點에서 본다면 未開期라 할 수도 있다. 그 端的인 史例로 조그마한 하나의 地球가 현재까지 東·西文化圈으로 兩分되어 開發되었으며 매우 異質的 對照文化의 성격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東道西器라 通稱될 만큼 東洋은 人間의 本質이라 할 人間性의 陶冶와 人類社會의 平和增進問題에 注力하였다면 西洋은 人間의 外的條件인 衣·食·住生活에 필요한 道具文化 開發에 注力하여온 경향이었다.

物心兩面의 二元體로서의 人間構造條件을 東西라고 하는 空間의 異域이 分割的으로 啓發하였고, 歷史라고 하는 時間의 變遷은 物質道具 優位의 方向으로 치중하여 현재 歷史의 主導權은 西洋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人類 歷史의 年代도 東洋 古代 文化大國인 中國이나 印度도 孔紀 또는 佛紀를 쓰지않으며 半萬年의 歷史를 자랑하는 韓民族도 자진하여 檀紀를 버리고 西紀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今年이 西紀 1996年임을 모르는 이 없건만 韓國人가운데 檀紀 4329년인 것을 아는 사람 몇명이나 될 것인가 생각하면 地球人의 歷史의 趨勢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現代를 20世紀라하고 4年후면 21世紀가 개막되는 해라는 사실을 全人類가 공인하고 通用하는 歷史意識에 異議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地球圈 外界人이 아닐가 의심받게 될 만큼 西歐史 중심으로 固定觀念化 되어 버렸다.

『紀元』이라 하면 『나라를 세운 첫 해』가 원뜻이고 『年代를 헤아리는 데 기초가 되는 해』가 이어지는 뜻이다. 그러나 地球에 二百餘個의 나라가 있건만 自己들 나라의 紀元은 접어두고 『예수』의 出生을 年代를 헤아리는 起點으로 삼아 『紀元前』을 『B.C』 즉, 『Before Christ』로 『예수 이전』, 紀元后를 『A.D』 『Anno Domini』로 즉, 英語로는 『in the year of our Lord』요 우리말로 『우리의 主 예수 享年』이라는 뜻이다.

現世界 58億 全人類가 예수를 上帝나 天主로 信奉하는 예수教徒가 아니건만 이처럼 예수를 人類歷史의 元點의 存在로 간주하는 不合理한 歷史現實 앞에 忿怒하여 今世紀를 20世紀가 아니라 한다면 그의 精神異常 여부를 의심받게 될 터이므로 우리는 好·不好를 떠나서 世紀의 約束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오늘이 陽曆으로 8月15日, 陰曆으로는 7月 2日이라는 엄연한 時間의 約束을 어기고 韓民族의 光復節 行事를 하루 앞당겨 거행한다거나 하루 이틀뒤로 미뤄 거행한다면 光復節의 존재이유와 意義를 부정하고 國家的 妄擧가 되는 것처럼 公認된 時制는 따르는 것이 正常的 生活人이요 時間과 空間秩序를 지킴이다. 사람마다 日字와 時間이 다르고 各者 自己 時日에 기준하여 生活한다면 時間觀念없이 살아가는 動物들의 生態와 다를 바 없거나 無秩序 大混亂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東洋人의 自尊心을 무릅쓰고 『東紀』또는 自國·開國 紀元이나 自己가 信奉하는 宗派의 敎祖 紀元이 있으면서 『西紀』를 부득이 사용하며 20世紀 또는 21世紀를 論하게 된다.

이처럼 오늘의 歷史가 西歐人 本位로 劃一化된 까닭은 人間의 肉體的 조건을 만족시키려는 衣·食·住生活의 道具 개발과 物理的 힘을 앞세운 生活圈 擴大에 경쟁적이다 보니 이에 關心이 작고 消極的인 東洋人 社會는 뒤질 수 밖에 없으며 경쟁 速度가 加速化할수록 落伍되어 西歐文化圈은 先進社會, 東洋文化圈은 後進社會라 自他가 公認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서가는 西歐史를 基準視함이 歷史의 正常 進路로의 進入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뒤떨어진 東洋史에 미련을 두는 것은 歷史의 後進을 褻함이 라 보아 東西 모두 西曆으로 統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西歐人에 의해서 主導되고 있는 오늘의 人類史가 과연 正道로의 進入인가 새로운 評價가 있어야 하겠다. 일찍이 獨逸의 유명한 歷史哲學者이자 數學者인 쉬펜글라(Spengler, Oswald 1880~1936)는 1918년에 『西歐의 沒落』 제1부를 出刊하였고, 1922년에 제 2부를 완성하여 世人을 놀라게 한 사실을 보아도 西歐人에 의하여 조종되는 歷史의 進路에 樂觀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뿐 아니라 今世紀 루마니아가 낳은 위대한 文豪이자 神父인 『25時』의 작가 게오르규(Gheorghiu 1918~1994)는 왜 自身이 『25時』라는 새 概念으로 作品을 써야 했는가를 韓國 知性人 앞에서 公開하였다. 그가 1974년 3월 20일 苦待하던 韓國을 첫 방문하여 3월 22일 梨花女子大學 대강당에서 『25時』를 『造物主가 다시 태어나도 救濟할수 없는 不治의 病에 걸린 時代』가 現代라 진단, 그 病名을 『25時』라 명명하였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良心있는 西洋의 知性人들 스스로가 西洋人에 의하여 展開되는 現代와 未來史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술에 滿醉한 運轉技士의 승용차에 同乘하면 技士와 乘客 모두의 生命이 위태롭듯, 現代가 바로 위험한 西洋의 歷史의 操縱士가 조종석에 앉아 歷史의 앞날을 조종하는 地球라는 승용차에 東洋人 西洋人 함께 合席하고 있는 時代라고 본다. 이래서 各 宗教界 人士와 知性人들 대부분이 文化는 高度로 발전하여 가는 現代를 『末世』또는 『危機』라 通稱하고 있음도 이유있다고 하겠다.

筆者는 現代를 20世紀 末期라고 하던 어떻게 표현하던 人類史的 측면에서 매우 큰 意義가 있는 時代라고 생각하는 바, 첫째 이유는 1945년 2次大戰이 끝나면서 強大國에게 점령되었던 弱小國家 植民地들 대부분 新生 獨立國家로 回生하여 右派가 되었거나 左派가 되었거나 民主主義 政治體制를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人尊 民主主義 時代가 개막되었다는 점, 君主主義 時代가 종말을 고했다는 政治史的 意義와, 둘째 하나의 地球에 東西文化圈으로 分割되어 오던 歷史가 合流되어 東西의 空間의 壁이 허물어지고 統合歷史期에 접어들었다는 歷史的 意義가 그것이다.

그래서 地球를 한 마을로 보아 地球村時代 開放文化時代 世界化時代라 표

명하기에 이르렀다.

筆者는 이 때문에 20世紀라 불리우는 現代를 歷史의 轉換期라 보는 바이며 細分하여 2次大戰이 끝난 今世紀 中半以前の 歷史期를 人類史의 前期, 中半以後의 歷史期를 人類史의 後期라 칭하기로 한다. 世稱 다가오는 21世紀는 이런 뜻에서 새로운 歷史의 章이 열리는 人尊民主時代요 地球村 統一文化의 開幕期라 하겠다.

每事에 있어서 始作이 가장 중요하듯 千萬里 大壯途로의 출발도 첫 角度에 미세한 誤差가 생기면 갈수록 大誤로 擴大되듯, 時間의 範疇인 歷史도 새 出發期에 잘못된 方向으로 進入된다면, 百年 千年 그 이상 時間이 累積할수록 어둠이 짙어가는 未來가 기약된다.

여기 世界化時代라는 새로운 歷史期의 進入路 앞에 서있는 現代人의 막중한 責任과 慎重을 期해야 할 所以가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듯 잘못된 過去史 흐름의 連續으로서의 未來라면 새로운 것 없는 낡고 더욱 잘못된 未來가 될 것인만큼 現在는 그것을 冷徹하게 비판하고 바른 方向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先決條件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올바른 人間에 대한 理解이다.

『人間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사람이 動物的 生活을 버리고 次元 높은 高等動物로 살겠다는 自覺이 시작되면서 부터 제기되었을 것이므로 그것은 有史以來라 볼 것이며 歷史의 발전도 人間の 自覺度에 比例해서 增進되는 것이라 하겠으니 地上에 人間이 存續하는 날까지 탐구되고 해답되어 질 것이다. 그러나 時間과 空間을 초월해서 變치 않는 總體的인 人間條件은 肉體와 精神이라는 二元的 構造體라는 사실의 前提만은 더 이상 의심치 말고 是認해야 하겠다.

西歐 近世哲學史까지 論難되어지던 唯心論이다 唯物論과 같은 觀念論의 形而上學的 人生論은 人生을 연구하는데 時間만 浪費할 뿐 永遠히 풀리지도 않으려니와 풀렸다 해도 하등 人生을 살아 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俗談에 알(卵)이 먼저이냐 닭(鷄)이 먼저이냐와 같은 循環論的 發生說은 創世期로 소급할 能力이 없는 限, 풀리지도 않는 假想說만 紛紛할 뿐이다.

그러나 靈肉 二元체로서의 人間에게 主從的 判斷은 可能하며 또 判定내리고 人生을 論해야 正論이 導出된다. 그것은 肉體와 精神의 複合體로서의 人生에게 있어서 무엇이 主體이고 從體이냐의 확정이다.

人生에 대한 主從의 原則的 判斷을 혼돈하게 되면 客體를 主體視하고 主體를 客體視하여 人生을 誤判하고 行路를 誤導하며 歷史의 正道를 脫線하게 되는 根源이 된다.

이 正確한 判斷은 理論的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實證的으로 내릴때 百說을 능가하는 簡明한 結論에 도달한다.

實例를 들어 여기 50명의 학생이 강의실에 출석하여 수강하고 있다는 사실은 記憶力이라고 하는 精神이 肉體를 이 時間 이 장소에 조종하여 출석하였고 강의內容을 수용하는 것은 精神的 集中力때문이요 肉身은 앉아 있다고 해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다. 결석 한번하지 않고 개근한 학생이라도 수업 時間에 精神이 산만하고 강의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 학생의 성적은 하위급이거나 낙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등생이나 열등생을 가름하는 기준도 肉身의 체중이나 美醜라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 임하는 그 精神力이 결정하는 것이다. 동물의 가치 즉 가격의 高下는 체중에 있지만 人間의 가치는 그 精神에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 肉身을 강의실까지 이끌고 온 操縱士는 그 精神이라면 肉身은 精神의 명령에 지배되어 追從한 자에 불과하므로 精神을 車의 운전사로 본다면 肉身은 車輛에 해당하니 人間에게 있어서 精神은 主體요 肉身은 從體임이 명백하다.

人間이 만물의 영장되는 것도 그 精神이 眞·善·美·聖이라는 精神價値를 계발하기 때문이고 人間마다 人格의 高下를 판별하는 기준 또한 金錢이나 지위의 高下에 있지 않고 그 人間性이라고 하는 精神을 얼마나 陶冶하였느냐에 있음은 古今 불변의 準칙이다.

이 자명한 事理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主體的 가치와 從屬的 가치관을 顛倒하여 金錢이나 物質 권세 따위의 從屬下位價値 追求에 몰두하여 人格을 포기하고 人間으로서의 基本權도 상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

乘用車가 아무리 고급이라 하더라도 技士로서의 실력이 부족하거나 음주 운전으로 방심한다면 大型交通事故를 일으켜 기사는 생명을 잃고 차는 폐차

가 되는 것처럼 精神과 肉體의 관계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해서 肉體를 안락하게 하는 物質價値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肉體없는 精神은 있을 수 없는 이상 物質生活의 풍요도 타 동물에게서 찾아 볼 수 없는 人間 幸福의 조건임에 틀림없다. 오직 人格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충족가치이므로 主格上位價値인 人格의 명령에 불복하고 下廻上하는 價値破壞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뿐이다.

歷史가 미개했던 古代社會 倫理에서는 安貧樂道를 찬미하였으나 物質文化가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貧寒을 自足하고 眞理 탐구에만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시대 착오적인 原始 가치관이 아닐 수 없다. 정직하고 근면성실하게 經濟力을 신장하여 健全하고 충족하게 衣·食·住 生活하는 것 現代文化人된 보람이다. 이것이 二元的 존재 人間에게 있어서 精神과 肉體의 조화로운 욕구 충족이요 원만한 幸福과 가치 실현이다.

둘째, 公正한 世界化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알아보기로 한다.

그것은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지구상에 태어난 人類라면 歷史 이래 觀點을 달리하여 異質文化가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長短點이 있을 것이므로 捨短取長의 방식으로 相乘發展케 하는 것이 最善策이라는 전제를 설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道具文化 從屬文化에 치중한 西歐人이 歷史의 主導權을 장악하다 보니 우리 東洋 知性人들 대부분의 文化觀과 歷史意識이 東洋的인 것은 後進的이고 未開한 것이며 西洋的인 것은 先進的이고 發展的이라 자학하고 西洋을 모방하고 추종하는 것이 先進隊列에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自然科學系列에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라 하여 人文·社會科學·宗教·藝術 기타 衣食住生活과 사고방식까지 서구화하는 것이 先進文化人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특히 西歐文物을 받아들이는 上位級 知性人일수록 이 경향이 두드러져서 조속히 東洋的인 것을 탈피하는 것이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자부한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西洋을 숭배하는 新版慕西事大主義的 종속심리가 演될 때 21세기 이후 世界化 時代는 全地球村의 歐美化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公正한 世界化일 수 없음은 물론 歷史의 正道를 이탈함이요 西勢

東漸이라는 東洋에 대한 文化的 植民地化의 自招가 아닐수 없다.¹⁾

過去 日帝를이땅에 迎入 그 支配를 허용하고 그와 和親, 그 그늘에서 권세와 부귀를 누리던 우리가 賣國 民族反逆者였다면 時代가 바뀐 오늘날의 그러한 부류를 찾아볼 때, 우리의 民族文化遺産를 賤待하고 外來文化 모두를 숭배하며 유입하여 이땅에 그것을 정착시키려는 自稱 지도층 先進知性人 들인 新版 慕西事大主義者들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것만 사랑하고 外來的인 것은 모두 배격하는 新版 國粹主義者가 새 시대의 愛國者像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도 世界化시대에 역행하는 歷史의 落伍者를 면치 못 할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지구상에 같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東·西洋人들이 歷史이래 東洋人은 주로 人間의 本質인 人間性 陶冶를 위한 內向 開拓 主體文化 啓發에 主力하였으므로 그 분야에 있어서는 人間 外的條件 充足을 위한 外向開拓 從屬文化 啓發에 주력한 서구인보다 앞섰다고 보는 것이고, 반면에 道具文化 開發面에서는 歐美人이 앞섰다고 보는 것이 公正한 評價라면, 東西開放化時代에 相互 交流하여 앞선 분야를 서로 수용하는 것이 世界化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歷史的 轉期作業이 될 것이고 새 歷史 발전 속도에 加速化 작용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1) 安鍾沄著, '世界化時代의 新道德 政治哲學研究', 1996. 1, 學文社 刊.
1~3面 머리말 參照

2. 久遠의 人類 평화의 길

歷史의 발전 기준을 可視的인 物量面에서만 보기로 하면 일찍이 西歐文化를 도입한 日本을 제외한 아시아 諸國은 落後된 것이 사실이요 歐美 諸國이 앞섰음은 文化觀이라는 관점의 差異에 있었음을 이미 언급하였으나, 매사에는 外形과 內容, 形式과 本質, 量과 質, 主와 從이 있고 그것이 存在構成要素이기도 한 바, 外形이나 形式 物量은 從屬的이고, 內容과 本質은 不可視的이기는 하나 主體的인 요소인 만큼 文化觀에 있어서도 主된 관점은 여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歷史의 흐름과 文化的 가치관은 전도되어 主體文化를 종속시키고 從屬文化를 主體視하여 국제사회는 이 경쟁이 치열한 것이 今世紀末的 특색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대를 經濟戰爭時代, 자유무역주의시대, 산업정보화시대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90년대로 政治 이데올로기의 左右派 싸움인 冷戰時代는 가고 經濟戰爭이라는 熱戰時代가 개막된 것이 20세기말 21세기적 현상이라 하겠다.

公正하고 豫見있는 知性人이라면 오늘의 歷史 趨勢가 무엇을 찾아 가는가 앞서 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다.

冷戰時代는 정치이념과 체제를 같이하는 友邦國과는 血盟國으로 結束되는 國際的 義理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라는 美名으로 經濟戰爭時代 이후는 나라마다 自國의 富強을 위해서라면 友邦이 敵이 되고, 敵이 友邦이 되며 그것도 장기적인 結束이 아니라 短時的인 利害打算에서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손을 잡고, 이용가치가 끝났다고 보면 斷交하는 國際信義 失蹤時代가 到來하였다.

한 나라 안에서도 국민과 정부, 국민과 국민간에 信義가 보장되어야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질서가 바로잡아지며 국가의 평화와 발전이 기약된다 함은 정치적 常道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고위급 위정자들은 在任期間 권력형 부조리로 不正蓄財나 일삼고, 재벌과 재벌간의 利權爭奪은 尖銳化되며 각 기업체내에서는 노사간의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鬭爭이 연발하고, 국민간에는 각자 利己主義 亂立으로 生活전선에서 악전고투하여 사치 향락에 경쟁적인 사회상이 전개된다면 그 나라는 病이 깊은 단계에 빠져 回生이

어려울 것이다.

그것의 확대현상으로서의 국제사회에서 國際信義를 破棄한 國際利己主義的 經濟熱戰이 加熱된다면 게오르규가 이미 豫察한 造物主도 구재불능이라고 25時的 진단을 내린 예지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며, 쉬펜글러의 『西歐의 沒落』을 예언한 歷史觀에 東洋까지 便乘한다면 世界化시대는 『世界의 沒落』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처럼 西洋의 一流 지도자급 知性人들의 이유있는 現代와 未來史에 대한 비관스런 견해에 失望만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人類의 歷史는 人間에 의해서 創造되는 만큼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반성과 새로운 슬기의 導出로 未來의 방향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또 잘못된 운전기사는 교체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西洋人만이 歷史의 主導者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最近에 와서 21세기는 亞細亞 太平洋圈 時代가 열린다는 말은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衣食住生活 향상을 위한 道具改善 文化가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歷史的 價値가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道具라는 것 자체가 가치있는 것이 아니다. 道具를 사용하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 가치를 인정 받을 수도 反價値的 物質로 전락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食刀라는 道具도 선량한 주부의 손에서 이용되면 가족의 식사 요리를 위한 좋은 利器이지만 강도의 손에 잡히면 人命을 해치는 凶器가 되듯 사용하는 主體者 人間이 善人이면 道具文化는 價値文化가 되고, 人間이 惡人이 되면 道具文化 발전은 人類 破滅을 앞당기는 高度 凶器 開發 增進이 될 것이다. 그 또하나의 실례로 에너지원으로 기대가 큰 原子力도 지구내에 한정된 不遠 資源이 不遠 高갈될 때 原子力 發電이나 原子力 활용 연구를 통해서 증가하는 미래 人類의 生活 보장과 科學 발전의 원동력 뒷을 할 것이나 殺生武器化될 때 가공할 파괴력을 과시할 것이다. 따라서 自然科學이 발전하는 것 그 이상 利己的 冷血動物化 되어가는 人間을 改善하는 人性 도야 科學인 道德學과 人間改造 改善科學인 倫理學과 같은 종합적 人間學은 심도깊게 연구되어야 하고 全人類에게 전파하여 그 實踐에 세계가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自然科學과 經濟力 增強에 주력하는 歷史 現

實에서는 人性과 人間改造 改善같은 문제는 초점권에서 벗어났고, 從屬文化 至上주의적 地球村의 歐美化的 世界化만이 정당시 되고 있다.

歷史상 最高의 歷史學者라 評價되는 토인비(A.Toynbee 1889~1974)는 그가 죽기 5년전 이러한 現代史의 동태에 경고할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지구상의 人類가 最初로 外界인 月世界로 아폴로 11호가 떠나던 날 祝賀 아닌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하였다.

『……人類가 達성한 科學技術과 倫理와의 사이에는 아직 위험한 간격이 있다. 지금도 이 간격은 크고 날이 갈수록 더욱 커갈 것이다. 우리 세대의 과제는 우리가 手中에 넣은 이 善惡兩用의 거대한 힘을 精神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人類의 倫理를 드높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달 착륙이 제3차대전의 대용품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에 들인 용기와 기술과 돈이 좋은 目的에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지구상에서의 習性대로 나간다면 달 착륙이란 人類가 잉여생산물을 어처구니 없는 일에 쓴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 아무리 이러한 人類의 壯舉라 할지라도 倫理性이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피라밋’이나 ‘앙크르와트’ 그리고 루이14세의 ‘베르사이유’宮殿에 못지 않는 浪費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²⁾

필자는 평소에 위 글을 크게 존경하여 오는 터이며 現代 危機問題를 論하게 되는 자리라면 그 인용을 빠뜨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歷史學은 過去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現實을 正視·珍斷하고 바람직한 未來를 創造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종합적 時間의 科學이라 정의한다면 그것은 일명 『時間의 醫學』이라 할 수 있고, 歷史學者 곧 『時間의 醫學者』인 토인비의 名診斷이요 名處方이기 때문이다. 그는 고도의 科學기술 발전시대인 현대에 讚辭를 보내기보다 病이 깊었음을 경고하고 진단결과 『倫理 缺乏症』이라 선언하였으며 그 久遠의 처방은 『倫理의 회복(再建)』에 있다고 위의 논평은 시사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東西洋에 수천년전부터 倫理가 연구되어 왔는데 왜 현대는 『倫理 缺乏症』에 걸렸는가에 있다.

그 답은 이렇게 내려져야 할 것이다.

즉, 人體의 疾患도 시대가 바뀌면서 過去에 볼 수 없었던 새 病들이 生命

2) 이 글은 아놀드 토인비박사가 영국 옵저버(OBSERVER)지에 기고한 것인데 東亞日報 김성열 런던 특파원에 의하여 1969년 7월 19일자 일면에 소개되었다.

에 도전해 오고 있으며 그 극복의 길은 신병균을 퇴치할 新藥을 개발해야 하듯, 歷史의 疾患도 그 때마다 새로운 처방을 개발해야 새 歷史를 創造할 수 있다는 원리에 따라, 기성 倫理學은 過去 倫理學이기에 現實을 진단할 수 없는 倫理學, 따라서 진단 없는 처방이 될 것이요 時效 지난 약과 같은 격이 될 것이다.

토인비가 내린 '倫理'는 결코 시효 지난 약과 같은 過去 倫理學일 수 없고 위기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現代人이나 現實을 정확히 통찰한 叡智人의 진단과 처방에 의거한 倫理일 것이다.

이제 그러한 倫理는 어디에서 얻어질 수 있는가?

앞에서 東洋人은 歷史이래 人間의 本質인 人間性 啓發과 종합적 人間關係 改善問題에 주력한 內向 開拓文化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精神文化 분야에서는 先導的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 公正한 評價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東洋의 知的 文化遺産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順理라 하겠다.

그렇다면 數千年來 東洋의 대표적 精神 文化유산은 무엇일까?

그것은 儒敎文化 佛敎文化 道敎(仙道)文化임을 공인할 것이다. 東洋의 이 三大文化가 지금도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二千數百年前 原始 儒·佛·道敎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채 現代적 시련의 挑戰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三敎가 분열적으로 應戰하면 극복에 劣勢를 피치 못할 것이다.

世界化 時代에 東洋의 精神 文化가 참여하여 그 功을 펼칠 수 있는 것은 三大文化를 統合하여 時宜適中한 새로운 正統的 思想文化를 도출하는데 있다.

印度에서 발생한 佛敎와 中國에서 발생한 儒敎 道敎(仙道)라는 고대 東洋文化가 韓國이라는 東土에서 그 통합의 실마리가 싹 텄스니 그 淵源을 살피면 三國을 통일한 花郎道 精神이 그것이다.

三國史記에 나타난 崔致遠의 유명한 난랑비서문에 花郎道(일명 風流道)의 思想內容이 소개되어 있는바 그 요지를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에 玄妙한 도가 있으니 가로되 風流라. 설교의 근원이 仙史에 소상히 갖추었으니 실로 三敎를 포함하고 群生을 接化한 것이다. 들어가

서는 집안에 孝하고, 나라에 忠하였으니, 이는 곧 魯可寇(공자)의 旨요, 無爲한 일에 처하여 不言의 敎를 행하였으니 이는 곧 周柱史(老子)의 宗이요, 諸惡을 짓지 말고 諸善을 봉행하였으니, 이는 곧 竺乾太子(釋迦)의 化라.』³⁾

이러한 花郎道 精神을 계승하여 朝鮮朝末 國內外的으로 어려울 때 ‘輔國安民’ ‘廣濟蒼生’의 기치를 앞세운 救國運動이 있었으니 崔濟愚에 의해서 창도된 東學이다. 東學思想이 儒·佛·道 思想을 韓民族 傳統思想으로 消化 統合하였음은 다음 글을 통하여 알 수 있다.

『東學의 성립은 유도·불도·仙道の 三습이라 하나, 오히려 그 저변에는 韓民族 전통적인 무속信仰이 흐르고 있으며 당시 민간사회에 크게 유포된 도참思想 특히 鄭鑑錄의 예언을 떠나서 東學의 종합적인 연구는 어렵다.』⁴⁾

東學이 儒·佛·仙 三道の 융합이라 함은 崔濟愚가 二代 교주가 될 崔時亨에게 道統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데서 이미 드러나 있다.

『이 도는 원래 儒도 아니고 佛도 아니고 仙도 아니고 儒·佛·道를 합일한 것이다. 즉 天道는 儒·佛·仙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儒·佛·仙이 天道의 한부분이 되는 것이다. 儒의 倫理와 佛의 覺性과 仙의 養氣는 모두 人性에 저절로 부과된 天道의 고유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 道는 無極大源을 다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금후 이 도를 얻은 사람에게 이 점을 유의하여 지도하지 않으면 안된다.』⁵⁾

이와같이 東學은 東洋의 精神文化를 통합하여 『人乃天』이라는 人尊思想을 誘導, 西學, 西敎(카톨릭교)의 精神侵略을 물리치겠다는 뜻에서 그 이름도 ‘東學’이라 명명하고 대항한 점, 思想史的 意義가 크고 또 民族史的 意義를 정리하면 그 뿌리는 古代 삼국통일의 精神인 花郎道에 淵源하며, 韓末 부패한 봉건제도의 타파에 실력으로 앞장섰고, 이 땅 이 민족을 物心兩面으로 침략하려는 洋·倭에게 斥洋·斥倭로 거족적 저항을 단행하였으며, 甲午 農

3) 李宜根 著, 韓國史(최근세편), 진단학회 編, 124~126면 참조

4) 金龍德 著, 『朝鮮後期 思想史 研究』, 229~230면 참조

5) 李敦化 著, 『天道敎 創建史』, 47면 참조

民革命에 이어 3·1 獨立運動의 선봉에 나섰으니, 韓民族史的 正統性を 계승 발전하는데 공을 세운 사실은 높히 評價된다. 그러나 이러한 歷史的 意義와는 별도로 숯한 희생을 남긴채 나라는 倭賊에게 뺏기고, 뜻을 이루지 못한채 東學軍은 散華하고 말았다.

여기 理想과 現實, 思想과 實踐의 課題가 제기되는 바, 아무리 思想이 理想的이라 하여도 그것이 現實에 실현되지 못 한다면 幻想이라는 評價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위대한 思想도 實踐哲學的 처방에 기초하지 안 했다면 幻想論에 빠지고 그 信奉者들에게 虛想을 심어 줄 뿐이다.

이처럼 思想이 犯하기 쉬운 結점을 극복하는 길은 實踐哲學的 토대 위에 定立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東學의 이러한 結함을 보완한 東洋의 統合思想을 찾는다면 姜飴山의 大巡思想이요, 大巡眞理가 幻想論도 虛想論도 아닌 까닭은 곧 ‘相生의 道’ 즉 ‘相生倫理’를 완벽한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飴山의 본명은 姜一淳이며 辛未年 九月 十九日(서기 1871년 11월 1일) 全北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에서 태어나 大巡思想과 그 實踐論을 도파하여 久遠의 人類平和의 길을 열고 己酉年 六月 二十四日(1909년 8월 9일) 化天하였다.

다음 本論에서 大巡思想의 實踐哲學인 相生倫理論을 詳說하기로 한다.

II. 本 論

1. 甌山과 大巡思想

甌山思想을 왜 大巡思想이라 하는가 典經을 통해서 알아본다.

『上帝께서 어느날 김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李瑪頭)가 東洋에 와서 地上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儒敎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天上과 지하의 경계를 開放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東洋의 文明神(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文運(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天上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物質에 치우쳐서 도리어 人類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친대 천리를 흔들고 自然을 征服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天道와 人事의 常道가 어겨지고 三界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人類와 신명계의 이 접약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千階塔)에 내려와 천하를 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 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삼십년을 지내다가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儒敎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降世하였노라』

고 말씀하셨도다.』⁶⁾

『공우가 삼년동안 上帝를 모시고 天地공사에 여러번 수종을 들었는데 공사가 끝날 때마다 그는 각처의 종도들에게 순회·연포하라는 분부를 받고 이 일이 곧 天地의 大巡이라』

는 말씀을 들었도다.』⁷⁾

『道主께서는 9년의 공부 끝인 정사년에 上帝의 삼계대순(三界大巡)의 眞理를 감오(感悟)하시도다.』⁸⁾

6) 大巡眞理會敎務部 編纂, 『典經』, 교운, 제 1장 9

7) 『典經』, 교운, 제 1장 64

以上으로 보아 '大巡'은 天界와 地界, 人界의 三界를 두루 通來하여 宇宙와 人生의 一貫된 眞理를 達觀, 그 貫徹을 위한 大公事라 하겠다.

여기 많은 연구의 소지가 있다.

첫째, 緒論末에서 언급한 東學과 龜山의 大巡思想과 民族宗教로서의 共通性 및 限界性이 명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통점이라 함은 음악에 있어서 前奏曲과 같이 東學의 人乃天 思想은 濟世大道의 사명을 上帝로 부터 부여받고 그 實踐을 위한 序幕이라 볼 수 있어 思想史的으로 東洋統合思想 전개의 脈絡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한계점이라 함은 東學운동이 왜 실패해야만 했던가 할 때 『儒敎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으니, 東學思想은 天地·人 三界를 달관하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大巡思想과의 한계가 드러났다.

둘째, 龜山이 降世해야만 했던 까닭은 『서양에게 문운을 열어 天上의 묘법을 본받아 人世에 그것을 베풀도록 하였으나 그 문명은 物質에 치우쳐 도리어 人類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天理를 흔들고 自然을 征服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天道와 人事의 常道가 어겨지고 三界가 혼란하여 道の 근원이 끊어지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上帝가 天上에서 직접 人身으로 顯身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開放化時代 世界化時代는 大巡思想의 차원에서 볼 때 이미 예고된 歷史의 構圖에 불과하고 宇宙 科學시대로의 진출을 촉구함이라 하겠다.

넷째, 서론에서 여러차례 지적하였듯 西歐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自然科學 위주의 道具開發文化는 좋은 뜻으로는 自然의 개발이지만 정확하게는 自然의 파괴 文化인 만큼 그 파괴와 훼손에 대한 犯罪의 대가를 치뤄야 하고 현재 대기권 地上 海洋 地下의 각종 오염과 公害에 시달림은 그 罪에 대한 罰이다. 이것들은 初期라 치더라도 누적되면 地球는 미생물로부터 모든 生命體가 살 수 없는 죽음의 惑星이 되고 말 것이다.

이미 龜山은 大巡思想으로 이것을 간파하였고 게오르규는 '25時'라는 新概念으로 표현하였다.

1974년 3월 20일 게오르규는 첫 韓國 방문 차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을 때

『내 생애에 가장 기쁘고 영광된 날이다. 人類의 25時的 위기를 해소할 위대한 思想的 처방은 바로 韓國에서 나오리라 믿고 있어서 少時 이래 것처럼 오고 싶었던 나라에 오늘 오게 되었으니까……』

라고 답하였다.

이말을 되새겨 볼 때, 神父의 몸인 그가 造物主라 믿고 있는 天主도 고칠 수 없는 歷史의 絶望病을 韓國에서 고칠 수 있는 처방이 있다면 天·地·人 三界를 一貫하는 大巡眞理를 예상하였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섯째, 論理에도 演繹的 추리와 歸納的 추리가 있듯, 眞理에도 部分的 眞理와 統一的 眞理가 있는 바, 전자는 특정 細部 분야에 만 통하는 眞理요 후자는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통하는 眞理이다. 예를 들어 특정 細部眞理는 自然科學에서 物理學, 化學, 生物學등이 각자 추구하는 분야별 眞理가 그것이고 더욱 專門化된 眞理는 生物學의 경우 動物科의 眞理와 植物科의 眞理가 다르고 동물과에도 곤충 포유동물 조류 어류 등의 생태계의 眞理가 달라서 얼마든지 전공이 심화되고 部分眞理가 다양하게 전개된다. 또 人體의 疾病을 治療하는 醫學的 眞理도 크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의 세부 治療법이 있으며 내과 외과도 각 장기마다 내과적 외과적 전문의의 세부전공 眞理(지식)가 있고 계속 더더욱 깊이 연구하는 것을 醫學의 발달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西洋의 科學的 眞理 탐구방법이라 한다. 그러나 反對로 下部構造 탐사가 아닌 上部構造로 통합적 眞理를 추리하여 간다면 醫學의 예로 肝에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일으킨 원인 部位는 어디이며 또 그 원인 部位의 원인은 무엇일까, 계속하여 추구하여 가면 결국 종합적인 건강관리 문제로 귀결된다. 종합적으로 건강관리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가장 취약했던 部位부터 이상이 생겨 全身을 쇠약하게 만들어 생명까지 잃게 된다.

醫學이 바라는 최고의 目的은 醫學的 治療를 평생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自然死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것은 醫學에 있어서 매우 아이러니컬 (Ironical)한 역설이지만 명백한 目的論임에 틀림없다.

大巡眞理는 人間 世上事에만 국한되지 않고 地球村 自然의 섭리와 宇宙질서까지 통털어 一貫하는 三界를 達通한 최고의 統一眞理임을 알았거니와 西歐式 오늘날의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의 연구방식으로는 그 이해가 힘들 것이다.

여섯째, 부분眞理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가지 眞理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統一된 大眞理의 차원에서 보면 모두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또 새로운 무엇을 야기시켜 一波萬波의 연쇄현상으로 조직됨을 알게된다.

그래서 人間事가 天地事에까지 파급효과를 초래하여 人間들의 잘못이 곧 地上 自然과 宇宙 질서를 혼란케하는 원인이 됨을 깨달아야 하겠다. 그 실례로 전술한 自然 개발이라는 自然에 대한 파괴행위가 전 지구와 그를 둘러싼 대기권까지 오염시켜 병들게 함이다.

이렇게 因果必然의 법칙에 따라 事理와 眞理가 두루 流通 大巡廻하는 통일된 大眞理를 大巡眞理라 아니할 수 없다.

일곱째, 이러한 三界大巡의 眞理를 大巡眞理會 道主 趙鼎山은 九年의 공부를 끝낸 丁巳年에 感悟하였고, 大巡眞理會 道人은 모두 이 眞理를 깨닫고 實踐하고자 正心 修道 躬行함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大巡眞理觀은 佛敎의 핵심교리인 業感緣起說의 입장에서 보거나 道敎이 元祖 老子的 道德經과 莊子の 齊物論의 원리, 儒敎의 天道로서의 誠의 哲學이나 현대 自然科學의 기본원리인 因果法則에 비추어 보아도 빈틈 없는 統一된 眞理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眞理를 흠모하고 익히고자 함은 단순히 깨닫는데 그치자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眞理를 행함으로써 眞人生活을 체험하자는데 目的이 있다.

아무리 三界를 통달한 大巡眞理라 하더라도 人間이 깨닫고 天地의 道에 參與하자면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으니 그 實踐方法論이 相生倫理論이다.

이제 章을 바꾸어 相生倫理를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밝혀 둘 것은 宗敎에는 크게 두 유형이 있는 바, 하나는 純粹宗敎 또는 一元的 宗敎와 또 하

나는 複合宗教 또는 二元的 多元的 宗教가 그것이다.

純粹 一元的 宗教라 함은 一神論的 宗教라는 뜻이 아니라 宗教의 바탕은 『信』(믿음)인 만큼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一貫一色』의 宗教를 말한다. 이러한 『믿음一貫一色的 宗教』에는 다분히 盲信性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서 옳고 바른 信仰生活을 하는 측은 正統 文化宗教人이 될 것이고 옳지 못하며 요사스런 믿음에 빠지면 迷信 또는 邪教徒로 전락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正統文化宗教라 인정받은 純粹 一元宗教는 현재까지 西歐文化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基督教가 이에 속하고, 迷信 또는 似而非 宗教·邪教로 인정받은 것은 敎理가 眞理에 어긋나서 신도를 기만하는 모든 宗教가 이에 속할 것이다.

다음 複合 二元宗教는 믿음 하나로 一貫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앞서 믿을 근거가 있는가 확인하는 知的 作業이 완료된 후에 信仰生活에 들어가는 宗教로서 知的 作業인 哲學的 기초 위에 宗教가 성립되는 二重性 宗教이기에 複合 二元宗教라 할 것이며 여기에는 迷信이나 似而非 宗教·邪教는 개입될 여지가 없겠기에 正統文化宗教라 하겠고 그 대표는 佛敎가 될 것이며 韓民族宗教로는 東學을 계승한 天道敎 大倮敎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다음 複合 多元宗教로는 ‘知’와 ‘信’외에 ‘善’이 개입된 三元的 複合宗教로써, 먼저 眞理임을 확인하는 哲學的 作業의 단계를 거쳐, 그것을 어떻게 實踐할 것인가의 구체적 방법론이 제시되고 그 방법을 충실히 이행한 자에 한해서 그 宗教의 目的境에 도달한다는 確信的 信仰生活을 하는 宗教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삼단계를 이수한 宗教는 기성 어떤 宗教보다 앞선 進步的 文化 宗教가 될 것이니 迷信이나 似而非 宗教·邪教등은 접근이 불가할 것이다.

그 三元的(혹은 多元) 複合宗教의 대표는 甌山에 의하여 大巡眞理가 천명되고 趙鼎山에 의해서 宗團이 정립되어 朴漢慶 都典에 의해서 宗統이 계승된 大巡眞理會라 하겠다.

그러므로 大巡眞理會종도들은 영원한 宇宙 人生의 一貫된 眞理를 올바로 깨닫고, 세계 全人類 앞에 몇몇하며 착한 행실을 모범보여, 혼탁한 人類社會를 정화하는 先導者 역할을 해야 참된 大巡眞理의 實踐人이 되어, 目的의

세계인 道通眞境의 主役이 될 宗教的 希望도 기약될 것이다.

2. 相生倫理論

이미 實踐없는 理想은 幻想이라 하였고 實踐的 방법론이 없는 理想的 宗教 또한 虛想을 盲信하는 幻想的 宗教임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으며, 올바른 眞理를 추구하는 참된 哲學과 건전한 實踐을 躬行하는 倫理道德을 바탕으로 宗教的 소망을 企圖해야 信者 本人과 人類社會에 공헌하는 文化宗教가 됨을 살피어 온 바, 宗團 大巡眞理會가 그 표본이 됨은 첫째, 大巡哲學에 있음을 1장에서 밝혔고 本章에서는 實踐 方法론인 倫理 道德的 측면을 고찰하기로 한다.

大巡思想에 나타난 實踐論은 大巡倫理라 할 수 있고 大巡倫理의 특색은 相生의 道인 점에서 '相生倫理'라 일컬어지고 있다. '相生倫理'라는 개념은 甌山의 說法이나 典經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다음과 같은 典經의 말씀에 근거하여 표명되었다.

『원일이 자기 집에 上帝를 모시고 성인의 도와 응패의 술을 말씀들었도다. 그것은 이러하였도다. 제생의세(濟生醫世)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災民革世)는 응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응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相生의 道로써 化民 淨世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오.』⁹⁾

이 외에 相生에 관한 언급은 또 있으나 2절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여기 '相生의 道'로써 化民 淨世하겠다는 甌山의 濟生醫世의 처방이 명시되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고 自然을 파괴하여 병이 깊은 세상을 治療할 醫學的 처방이 '相生의 道'라는 말이다.

9) 『典經』, 교운 제 1장 16. 160면

‘道’란 무엇일까?

필자는 倫理學을 연구하는 拙著 첫머리에 倫理學의 總論的 定義를 ‘人道의 科學’이라¹⁰⁾하였거니와 倫理는 人間이면 모두가 걸어가야 할 常道를 이룸이요 그에 관한 학문인 倫理學은 보이지 않는 精神的 道路로써의 人道를 物理世界의 道路처럼 확연히 보이듯 明示하고 인식시키는 作業을 주무로 하는 科學이라 하겠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아도 『倫理 곧 人道』줄여서 『倫理 = 道』라면 『相生의 道』는 『相生倫理』가 된다.

이제 節을 바꾸어 倫理에 관한 종합적 연구 아울러 밀접한 관계에 있는 道德論에 관한 연구를 전개하기로 한다.

(1). 東西倫理論의 比較研究

人間이 萬物의 靈長일 수 있는 근본조건이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倫理的 生活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각종 文化生活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衣·食·住라는 物質文化生活을 아무리 高級스럽게 하여도 精神文化의 眞髓라 할 倫理 道德을 외면한 榮華는 萬人의 地탄을 받아 마땅한 人間反逆者로 규정됨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全 人類가 善한 사람은 尊敬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지만 惡한 사람은 蔑시하고 憎惡(憎惡)하며 人間社會와 隔離하려 하는 바, 그 善과 惡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 問題는 東西 現代倫理學에서 크게 研究되는 核心分野여서 이 한 편의 論文에서 詳論할 성질이 아니나, 간단하게 定義하면 「倫理的 行爲는 善이고, 反倫理的 行爲는 惡이다.」라고 할 때 古今과 未來에까지 이에 反論을 제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本質的인 問題는 남아 있으니, 善과 惡을 판단하는 準則으로서의 ‘倫理’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倫理’에 대한 學者들의 견해는 다양하겠으나 筆者는 總論的 定義에

10) 安鍾沄 著, 『民主倫理學要論』 螢雪出版社 刊. 1993. 1面 참조

서 ‘人道’라 하였다.

人間은 動物科에 속해 있으므로 움직이고 人間の 길을 가야 하는 바, 그 길은 不可視的이나 物理世界의 길 몇 갑절 많다. 魚族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人間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가 끝나는 生命體이므로 마주치는 사람마다 길이 있게 마련이다. 가정에서는 妻子 父母 兄弟間에 가야 할 길이 있고 地域社會는 이웃들 모두, 國家社會에서는 爲政者와 國民들 또 國民과 國民間에 만나는 이마다 서로 지키고 가야 할 길이 있으니 그 길을 깨닫는 것이 倫理的 自覺이요 각자 身分에 맞게 행하는 것이 人間된 處世이다.

時間과 空間이 변할 때마다 응분의 도리 즉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알고도 이탈하면 人間 失格者가 된다.

車는 車道를 올바르게 주행할 때에 한해서 차구실을 하는 것이며, 車道를 탈선하여 남떠러지에 전복하거나 자기 車線을 이탈하여 人道나 中央線을 넘어 남의 車道에 뛰어들면 大型 交通事故를 유발하여 차는 廢車되고 자기의 生命과 남의 生命까지 잃게 하고 만다.

이와 같이 人間은 倫理라는 人道를 正直하게 지키고 가는 사람만이 人間の 品位와 人格性 나아가 尊嚴性을 인정받는다. 人道를 이탈하는 자는 곧 人生事故者가 되고 그가 大小 犯罪者이며 惡人으로서 그 惡의 정도가 클 때 人間社會 어디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廢人이 되어 大型事故車는 廢車 처리되듯 廢人 취급되고 것처럼 처리된다.

車를 운전하는 사람은 일평생 한時도 交通法規와 車線 지키기에 방심하여서는 안되듯, 全 人類는 生命이 끝나는 날까지 倫理라는 人道를 지키기에 一心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經濟第一主義 自然科學至上主義로 獨走하는 現代人들은 ‘倫理’라 하면 前近代的 保守規範이라 생각하고 倫理를 강조하는 사람은 過去指向的 時效지난 人間視하고 있음은, 모든 운전자에게 車線 지키기와 交通法規에서 해방될 것을 선전하는 격이라 하겠다.

車는 車線이 ‘生命의 길’이듯, 人間에게 있어서 倫理는 ‘人間되는 길’이요 ‘人間 生命 保全의 길’이다. 그래서 甌山께서도 廣濟蒼生의 道는 ‘相

生의 道' 즉 '相生倫理'에 있음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이제 本論에서는 倫理에 대한 學術的 研究를 위하여 各論的 定義를 내리기로 한다.

가. 對象論的 側面의 定義

모든 學問은 각 專攻分野가 있고 그 專攻의 焦點이라 할 對象이 명시되어 있어서 獨立學으로서의 存在이유를 확보하고 있다. 즉 自然科學 가운데 物理學은 自然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면서 自然現象에 대한 物理的 變化의 原理를 규명함에 있고, 化學은 自然現象 가운데 化學的 變化의 原理를 규명하고, 生物學은 自然界의 生態原理를 규명함으로써 專攻分野가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간다.

그러면 倫理學의 對象은 무엇일까?

그것은 人間自體에 대한 종합적 研究이다. 즉 人間の 本質이라 할 人間性 問題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값진 삶이 될 것인가 하는 價値問題가 主流를 이룬다. 이 점 人間을 對象으로 하되 事實的 人間, 物理的 人間을 對象으로 하는 認識論 心理學 醫學과는 구별된다.

醫學은 人生의 肉體的, 精神的 正常與否에 관한 健康問題를 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人間の 外的 조건을 다루는 形式科學이라 한다면 倫理學은 人間이 他 動物과 구별되는 本質인 人間性 開發問題가 주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人間 本質科學이라 할 수 있다. 人間性이라 하면 주로 人間の 精神面과 思惟作用을 통해서 파악되기 때문에 認識論이나 心理學과 比較가 되나 이들은 對象과의 교섭에서 일어나는 사유의 사실(be)을 다루는 學問인데 비하여 倫理學은 生來的 人間性에 만족하지 않고, 바람직한 人間性, 있어야 할 人間性, 즉 當爲的(ought to be) 人間性을 자율적으로 開發하여 자신과 人間社會를 끝없이 發展시키려는 人間 삶의 價値 學이다. 넓은 의미에서 對象論的으로 倫理學을 定義하면 當爲的 人間 學이다.¹¹⁾

11) 和辻哲郎 著 『人間の學としての倫理學』(岩波文庫 刊)에서 和辻교수는 '倫理學 그 自體를 人間の 學'이라 하였다. 矢島羊吉 著, 『新版 倫理學의 根本問題』(福村叢書), 66面에서 '倫理學은 모름지기 人間에 관한 學問的 研究이기에 人間學이라

나. 比較論的 側面에서의 定義

倫理學은 다른 모든 學問과 比較해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知識學이 아니라 實踐을 目的으로 하는 行爲의 科學이기 때문에 일명 實踐哲學이라 칭하여지고 있다. 知識의 면에서 보아도 他學問 그 이상 풍부한 영역이 있으나 倫理的 知識들의 存在이유는 바로 行爲를 추진할 原動力의 역할을 할 때에 한해서 인정된다. 實踐을 目的으로 하지 않는 어떠한 倫理理論이 있다 해도 그것은 空理空論으로서 死文書化되어 버린다.

따라서 倫理에 있어서 知識과 行爲를 比較하면 知識은 從屬的 기능에 그치고 行爲는 主格위치를 차지한다. 他學問은 거의 知識의 開發과 그 전승으로 사명이 그치지만, 倫理學의 경우는 아무리 東西古今의 倫理學的 知識에 능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行爲 면에서 위반한 學者가 있다면 世評은 ‘二重人格者’, ‘僞善者’, ‘表裏不同人’이라는 가혹한 비난이 집중됨을 막을 길이 없다. 이처럼 倫理學은 知識本位の 他學問에 비해서 行爲와 직결되어야 할 二重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一名 實踐哲學이라 한다.¹²⁾

다. 任務論的 側面에서의 定義

倫理學이 아무리 行爲의 科學이라 하더라도 人間의 動作 모두를 관여하지 않는다. 人間은 動物의 일종이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움직임’ 즉 動作(action) 중에는 無意識的 혹은 衝動的 動作과 意圖的·自覺的 動作이 있는바 後者는 行爲(conduct)라 하고 倫理學은 우선 前者(action)를 제외한다. 또한 意圖的 行爲 모두가 倫理的 평가의 對象이 되지 않고 人間存在的 自覺 즉 社會的 存在的 自覺에서 자신과 주변

할 性格의 것'이라 하였다.

12) 『哲學大事典』, 學園社 刊. ‘倫理學은 一般的으로 人間의 行爲에 관한 여러 가지 問題와 規範을 研究하는 學問 또 道德哲學이라 불리운다’

片山正直 著, 『倫理學』, ‘行爲實踐を離れては倫理は無に等しい’

『Right and Reason』 (1967, p.8), Austin Fagothey. ‘Ethics is defined as ; the practical normative study of right and wrongness of human conduct as known by natural reason’

共同體가 한결같이 바라는 그런 有意的 行爲 이룸하여 價値行爲를 계획할 것을 임무로 한다.

이러한 價値行爲를 우리는 ‘善한 行爲’라 하며 이것이 倫理學의 共通目的 行爲이기도 하다.

우리는 行爲世界를 살필 때 意識的 行爲가 무수하게 많지만 그것이 자기 一身에게는 有益하더라도 他人에게 無益하거나 해로운 行爲가 있고 남에게 전혀 무관한 行爲가 얼마든지 있음을 안다. 農夫의 耕作行爲, 勤勞者의 勞動行爲, 職場人의 사무행위, 예술가의 藝術活動 등과 같은 職業的 行爲는 모두 意識的 行爲임에 틀림없으나 그것들이 전부 倫理的 行爲가 될 수 없는 것은 각 個人의 生業 즉 生活手段이기 때문이다. 個人의 生活手段으로서의 行爲가 倫理的 行爲일 수 없는 이유는 生命을 가진 자, 動物은 물론 植物까지도 각자 살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 억세계 活動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들이 倫理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충이가 솔잎을, 황충이가 가랑잎을 먹는 生命活動은 人間이 조림한 林野를 해친다는 점에서는 人間에게 害蟲이 될 수 있으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有益도 有害도 떠난 自然의 섭리일 뿐이다.

農夫가 山地의 樹木을 벌채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行爲나 大財閥이 산을 허물어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干拓事業은 송충이의 害林에 비할 바 아닌 몇천만 갑절을 능가하는 엄청난 自然의 破壞行爲가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倫理的 또는 反倫理的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職業的 行爲가 倫理的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職業倫理라 칭하게 된다. 그것은 一身 또는 一家의 生業的 行爲가 他人과 관련성이 있어서 有益 또는 有害作用으로 파악할 때 倫理的 次元에서 평가된다. 즉 自身이 살기 위해서 他人에게 해를 끼치는 行爲는 倫理的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職業을 통해서 他人에게 有益한 영향을 끼치면 높이 평가받는다. 모든 職業人들은 이 점을 명심하여 자신의 職場活動이 社會的으로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가 社會的으로 有益한가 反社會的 行爲가 될 것인가 슬기로운 판단에서 이루어져야 價値 있는 職場生活이 될 것이며 尊敬받는 倫理人의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자

기들 職場 集團人들 만의 利益을 위해서 수많은 社會人에게 피해를 주는 行爲는 反社會, 反倫理的 그래서 惡한 職業行爲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倫理學은 行爲主體인 本人과 그와 關係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有益한 行爲를 선별하여 實踐할 방안을 研究하는 것이 그 임무라 할 수 있기에 일명 ‘價値行爲의 處方科學’이라고 定義 내릴 수 있다.¹³⁾

라. 語源學的 字意的 側面에서의 定義

東西文化圈을 言語나 文字적면에서 구별한다면 東洋은 表意文字文化圈, 西洋은 表音文字文化圈이라 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言語나 學術概念을 근원적으로 研究하는 자리에서는 東洋의 學術概念은 有意文字인 表意文字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글자 하나마다 함축하고 있는 뜻을 심층 깊이 탐구하여 그 概念의 깊은 뜻을 파악하는 字意的 고찰이 가능하나 西洋의 無意 表音文字로 구성된 概念은 字意的 고찰이 불가능하여 ‘말 뿌리’인 語源을 찾아 올라가 言語史的 研究로 學術概念의 原意를 파악하는 語源學的 研究(Etymological study)를 택할 수밖에 없다.

먼저 西洋에 있어서 ‘倫理’는 ‘Ethics’(英) ‘Ethik’(獨) 이고, 지극히 밀접 하게 혼용하고 있는 ‘道德’은 ‘moral’(英) ‘moralität’(獨) 이다.

이제 ‘倫理’를 研究하는 자리에서 同意語처럼 쓰여지고 있는 ‘道德’도 함께 研究하여 同意概念인가 異意概念인가 밝히고 왜 두 概念이 一體兩面 概念과 같이 병행되는가? 相生倫理를 탐구하는 前提條件으로 삼고자 한다.

西洋에 있어서도 英·獨語에 있어서 倫理와 道德은 概念의 표현이 구 별되어 있건만, 그 語源의 의미 내용은 거의 같다. 즉 ‘Ethics’나 ‘Ethik’의 語源은 그리스語 ‘Ethos’(風俗 習慣 慣習)에 있고, ‘moral’이나 ‘moralität’는 라틴語 ‘mos’또는 복수 ‘mores’(風俗 習慣 풍습)에 語源하 며, 獨逸語의 경우 倫理와 道德을 아예 혼용하고 있는 ‘Sittlichkeit’의 어

13) 金泰吉 교수는 “道德은 인간이 지켜야 할 行爲의 規範이다. 다시 말해서 道德 律은 行爲의 處方이다. …… 그러므로 行爲의 處方으로서의 道德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行爲者 또는 그의 社會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의 指針을 밝혀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國民倫理』, 韓國 國民倫理學會 刊, 1987. 74面 參照.

김교수는 道德을 倫理와 같은 것으로 보는 입장이어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

간은 'Sitte'인바, 'Sitte'는 慣習 風俗 習慣으로서 그리스語 'Ethos'나 라틴語 'mores'나 같은 뜻이다. 또한 獨逸語의 'Sittlich'라는 형용사는 '倫理的' '道德的' '慣習的'이라고 같이 쓰고 있으며, 英語의 'moralist'는 道德家 倫理學者 道學者로 공용하고 있는 점 獨逸語의 경우와 같다.

이와 같이 西洋에 있어서는 倫理와 道德이 語源의 國籍은 달라도 風俗 習慣이라는 같은 뜻의 어휘에서 파생한 이상 두 概念은 근원적으로 같을 도리밖에 없으며 굳이 구별하는 것 自體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東洋의 경우 東洋 共用文字인 表意文字로 倫理와 道德을 표기할 때 文字마다 독립된 뜻이 있으므로 그 構成 어휘도 같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제 倫理와 道德에 관하여 東洋 字意的 側面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倫'은 '인륜륜'이라 해석하고 있으나 이것은 해석이 아니라 '人倫륜'이니 同意語를 반복한 循環論的 定義라 하겠고, 原意는 '무리' 즉 '同類'를 나타내며 또 '차례'의 뜻이 있어 '秩序'를 의미한다. 이 두 뜻을 종합할 때 集團 속에서 구성원간에 有機的 關係로 結束함을 나타낸 文字라 하겠다.

'理'는 '이치리', '도리리'라 해석한 점, 앞에서 '倫'을 '人倫륜'이라 해석한 것과 같이 '理致리', '道理리' 또한 同意語의 반복이나, '다스릴리', '결리'와 함께 '天理', '性理'등으로 '理'자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物理世界에 陸路, 水路, 航路와 같이 길(道路)이 있는 것처럼 宇宙 내에도 生成法則과 삼라만상 個體들 각자 그 法則 그 原理를 內在하였다고 보는 견해를 표현할 때 '理'자로 표기하므로 原意는 「바른 마음의 길」이요 「精神的 道路」가 있음을 나타내는 文字라 하겠고 英語로는 'reason', 'logos'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이 두 文字가 결합하여 '倫理'라는 概念이 성립되었으므로 倫理는 「人間이 共同體內에서 相互 마음의 길을 開通하여 유기적 關係를 結束함」이라 하겠고, 倫理學은 「人間關係 改善科學」이라 定義할 수 있다.

다음 '道德'에 관하여 살필 때 '道'라 함은 '倫理'를 하나의 文字로 집약하였다고 보겠으니, 倫理를 추가 설명하면 '倫'은 이미 밝힌 바와 같

이 '同類共同體內的 關係性'을 뜻하고 '關係'를 맺기 위해서는 精神的 벽을 허물어 마음의 길을 開通할 때라야 가능하므로 倫理는「社會的 存在·共同體內的 存在로서의 人間들이 고립된 個我的 牙城을 허물고 나와 너 너들 간에 길을 뚫어, 내 마음을 그대가 알아주고, 그대 마음을 내가 헤아려 주어, 서로 원치 않는 것은 自制하고 서로 소망하는 바를 成事시켜 和樂한 社會를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모두가 고립된 개아들간에 마음의 길을 開通함으로써 人情 人間味와 人間美가 통래할 수 있는 바, '倫理化'의 작업은 「精神的 道路 開通工事」라 하겠기에 '倫理'는 '道'로 집약된다.

다음 '德'은 왜 추가되었는가?

이미 『說文』에서도 풀이한 바와 같이 「道得也」로 보아 '道德'은 '道得'이요 '得道'인 것이며 '得道'는 '得倫理'가 되고, '得倫理'는 「마음의 길을 뚫을 수 있는 힘을 내가 갖춰줌이요, 뚫은 길을 갈 수 있는 힘 즉 實踐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함」이다.

그래서 筆者는 倫理와 道德의 차이를 비유하여 예를 든다면 倫理는 物理世界의 道路에 해당한다 하고, 道德은 道路를 주행하는 車輛의 油類탱크에 주입된 燃料인 기름이라 비유하며, 아울러 추가 설명할 것은 '人格'인 바, 人格은 각자 人間이 修得한 道德의 程度로서, 物理的 비유로는 車輛마다 주입된 '油類量'이라 보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表意文字的 側面에서 보면 倫理와 道德이 유사한 것 같으면서 核心은 道路와 車輛의 油類탱크에 저장된 油類만큼이나 異質的 概念임을 알 수 있다. 엄격히 따지자면 學問 系列別로 분류할 때 道德學은 主體者 각 人間들의 價値 實踐問題를 다룬다는 점에서 종래 倫理學이 人文科學 系列로 분류되듯 人文科學에 속하지만, 倫理學은 基礎社會인 가정에서의 家族關係를 위시하여 地域社會 國家社會 人類社會의 人間關係 平和 增進問題를 科學的으로 研究함을 目的하므로 社會科學 系列에 분류해야 옳을 것이다.

14) 拙稿 『國民倫理教育의 進路』, 國民倫理研究 제13호, 37面 參照. 國民倫理學會刊. 1982. 4

無意文字인 表音文字 文化圈인 西洋에서는 'Ethics'와 'moral'이 구별하기 어려운 同意概念이었으나 有意文字인 表意文字 文化圈 東洋의 경우, 하나는 社會 科學 하나는 人文科學으로 系列을 달리할 만큼 隔差가 지대함을 알게되었다.

여기, 現代文化는 歐美가 주도권을 장악하였다고 하여 現代는 表音文字 文化時代라 속단하고 우리의 語文生活에서 表意文字를 몰아내고 70% 가까운 表意文字 어휘 모두를 無意文字로 표기해야 한다는 일부 知性人들의 주장이 정당한가, 그리고 그것이 學術 研究와 民族文化 發展에 효과적일 수 있는 주장인가 생각 해 볼 계기도 마련되었다고 본다.

以上 表意文字로 구성된 '倫理' '道德'과 表音文字로 구성된 'Ethics' 'moral'에 대한 고찰을 한 바 東洋의 概念에서 眞理의 未來 指向的 永遠性을 발견하였고 西洋의 概念에서 過去 指向的 保守性을 알게 되었다.

東西倫理論을 比較하는 節인 만큼 그 대표적 學說을 가지고 간략히 대조하기로 한다.

東洋文化圈 대표적 傳統倫理는 儒敎倫理, 그 중에서도 孟子의 五倫思想과 中庸의 五達道論을 들지 않을 수 없다.

『孟子曰 人之有道也. ……敎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藤文公上)¹⁵⁾

孟子가 보는 人間社會 基本組織은 血緣의 因果關係로서의 父子關係, 國民과 國家關係인 君臣關係, 生命創造의 同伴者인 夫婦關係, 縱的인 人間關係인 上下關係(長幼), 橫的 人間關係인 朋友關係로 보았다.

中庸에는

『天下之達道五, 所以行之者三, 曰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也, 五者天下之達道也. 知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 所以行之者一也』(中庸 20章)

15) 孟子는 직접 「五倫」이라 하지 않고 「敎以人倫」이라 하였을 뿐이다. 左傳의 「五敎」와 尙書의 「五品」과 구별하기 위해서 五大人倫을 「五倫」이라 通稱한다.

이와 같이 五達道로 天下의 공통된 기본적 人間關係를 명시하였다. 이미 '道'는 '倫理'의 집약이라 설명하였거니와 孟子的 五倫과는 君臣父子關係의 순서만 다르고 넷째, 長幼라는 上下關係를 昆弟 즉 兄弟로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三達德」은 知·仁·勇이라 하고 이것이 五大道 즉 五大倫理를 實踐할 수 있게 하는 原動力으로서의 三大道德이라 하여 倫理와 道德의 한계를 명백히 하였다.

다음 東洋 傳統倫理思想의 集結이라할 龜山의 大巡哲學에 입각한 相生之道論은 道 곧 倫理인 만큼 '相生倫理'라 함은, 倫理를 지키면 서로 살고(相生) 倫理를 이탈하는 자 相滅한다는 뜻이 내포되었으니, 倫理의 正鵠을 찌른 것이기에 節을 바꾸어 詳說하기로 한다.

이제 西洋 倫理思想을 밝히는 자리에서 미리 알아 둘 것은 倫理 道德이라는 概念을 語源學的으로 고찰한 바 過去指向的 保守性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그 概念이 형성되던 古代 상황에서의 일이요. 現代 西洋 倫理思想까지 保守的이라고 선입감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西洋의 現代 대표적 倫理 思潮만 거론하기로 한다.

西洋의 倫理思想界에 있어서도 人間이 지켜야 할 절대 불변하는 眞理를 추구하는 倫理學的 絶對論(ethical absolutism)이 傳統的 正統의 자리를 지켜 왔다. 그러나 現代 自然科學과 社會學 心理學 등의 발달로 人間에게서 그러한 倫理의 準則이 유도될 수 있는가? 準則 自體가 있는가? 크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現代 西洋倫理思潮의 특색은 倫理的 懷疑論으로부터 시작된다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思想의 급변기에는 傳統的 思想을 지키려는 保守派와 傳統思想을 과감히 초탈하려는 革新派가 있게 마련이니, 道德의 準則은 있고 있어야 하며 그 짜여진 準則 즉 規範을 탐구하려는 保守的 倫理學을 '規範倫理學'(normative ethics)이라 하고, 이미 짜여진 각본과 같은 規範이나 準則, 未來까지 꼭 있어야 할 規範을 찾는 것이 倫理學이라면 이미 그것들이 불신받고 있는 마당에 그 간의 倫理學은 「學이될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르러 倫理學의 學으로서의 가능성 여부를 탐구하는 革新派를 '메타 倫

理學’(meta-ethics)이라 한다. 그래서 메타 倫理學派의 學者들을 分析學者(analyst)라 하고 規範倫理學派의 學者들은 道德學者(moralist)라 구별하여 부르기에 이르렀다.

「道德的 言明의 眞僞를 밝힐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있다’고 답하는 측을 倫理認識 肯定論(cognitive theory of ethics)라 하고 ‘없다’고 답하는 측을 倫理認識 否定論(noncognitive theory of ethics)이라 한다.

古典적인 대부분의 倫理觀은 肯定論에 속하고 現代倫理學에도 直覺論的 倫理說 形而上學的 倫理說등은 肯定論에 속하나 主流는 倫理的 懷疑論(ethical skepticism)에 편승한 否定論이 發展을 하였다.

그 대표적인 學說로는 倫理學에서 當爲的 實踐論을 피하고 論理的 實證主義(logical positivism)의 分析的 方法論을 배경으로 한 ‘이모티비즘’(emotivism)을 들 수 있고, 實踐哲學으로서의 倫理學이 ‘日常的 言語의 分析哲學’(Analytical philosophy of ordinary language)을 배경으로 하는 分析哲學的 倫理學(Analystical ethics)으로 치중하는 學派가 그것이다.

歷史以來 文化가 발달한다 함은 각 分野마다의 學問이 發展하기 때문이라면 모든 文化와 學問은 人類의 필요에 의해서 開發된 것이 사실이다. 倫理學도 歷史와 함께 人類가 꼭 필요하기에 開發한 것이라면 倫理學은 무엇을 目的으로 필요성이 절실하였는가, 그것을 규명하고자 本論文에서 倫理學에 대한 總論的 定義와 各論的 定義를 比較的 구체적으로 내렸던 것이며 다시 요약하기로 한다.

첫째로 倫理學의 對象은 宇宙 삼라만상 가운데 오직 人間自體의 本質인 人間性을 도야하여 高級스럽게 살 것을 研究의 焦點으로 함을 밝혔고, 둘째 수많은 여타 學問과 倫理學이 구별되는 것은 知識이나 言語를 合理的으로 구사하자는 知識 本位 科學이 아니라 옳다고 알고 있는 知識을 實踐하자는 實踐目的學임을 밝혔고, 셋째 實踐이라 하되 動作 모두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眞) 바르고(正) 착한(善) 行爲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價値行爲를 研究 創出하려는 學問이라 하였으며, 끝으로 語源學的 字意的 考察에서 西洋 倫理概念의 保守性보다 東洋의 뜻글자를 통하여 地球村 人類가 영원히 共生共榮의 길을 찾으려

는 人間關係 改善科學이라 하였다. 이러한 目的에서 開發되어 오는 倫理學이 현재 當장 完벽을 기할 수 는 없는 노릇이지만 人間들의 努力에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發展할 것이어늘, 現代 西歐의 倫理學的 動向은 위 四大 目的論에 이달하여 倫理 本然의 軌도가 아닌 倫理에 대한 懷疑에서 言語 分析, 知識 本位 특정 哲學者 위주의 貴族的 高級學說 開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全 人類의 終身 必須科目으로서의 倫理 道德學이 學者 특히 一部 哲學者만을 위한 非民主的 倫理思潮로 흐름이며 더욱 世界化時代 東西 全人類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倫理學일 것인가 倫理學徒의 한 사람으로 크게 우려한다.

(2). 大巡思想과 相生倫理

甌山에 의하여 창도된 大巡思想은 天·地·人 三界를 통달한 宇宙의 法則 규명이라 하였다. 1절에서 살핀 西洋 現代 倫理思潮에서 본다면 論理的 으로나 言語分析으로는 증명될 수 없으므로 좋게 평하여 形而上學的 觀念論이라 하겠고 냉정하게 평하면 架空的 幻想論이라 할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人間이 절대로 지켜야 할 法則 즉 人道, 꼭 있어야 할 價値 등을 懷疑하고 그것을 研究하여 實踐하려는 倫理學은 學問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傾向이고 볼 때 倫理學者에 의하여 倫理의 危機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5時的 末世에서 人類를 救援할 유일한 處方은 ‘倫理의 回復’이외에 없다는 최고의 時間의 醫學者인 歷史學者 토인비의 경고를 再三 음미해 보아도 現代 西洋 倫理思潮에 편승하여 不變의 宇宙의 法則과 영원히 存在하는 人道를 포기할 수 없고, 世界化 時代가 개막되었기에 東洋의 종합적 思想의 위치에 있는 大巡思想과 그 實踐哲學인 相生倫理가 참여해야 할 때가 왔다.

東洋에서는 고래로 宇宙의 法則은 ‘生成의 法則’이라 하고, 太古 以來 영겁의 未來까지 萬物이 存在하는 그 事實自體 속에 生成의 法則이 內在하였기에 存在가 가능하므로 이 法則은 形而上學이라기 보다 오히려 形而

下學的 實存이며 實證的 法則이라는 입장이다. 證據는 物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不可視的 精神的 證據도 있다. 왜냐하면 宇宙도 宇宙의 法則이라는 宇宙精神 요소와 宇宙 物質的 요소의 二元的 存在이며, 그 法則의 所産이요 그 축소체라 할 人生도 肉體와 精神 二元的 有機體로서 精神이 主體임을 서론에서 論證한 바 있으니 物證과 동등하게 精神的 證據는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一體 物心兩面의 存在를 唯物이라는 편견에 빠지다 보니 精神存在를 인정할 능력이 없어 ‘不在라’독단을 범하는 것이다. 物證보다 오히려 原因證據요 主證據가 精神證據이며 生成世界에서는 그것이 法則이 된다. 善行이나 犯罪가 이루어지는 것도 精神이 肉體를 조종해서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다.

人間 個人을 改善하는 것이나 人類社會의 平和와 幸福을 증진시키는 것도 또한 이 原理에 따르면 個人과 全 人類의 精神世界의 改善에 있고 더 확대해서 宇宙秩序를 바로잡는 것도 宇宙精神의 善導에 있다는 推論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人生과 宇宙에 一貫하는 精神法則을 통찰하고 주재하는 것을 三界大巡이라 해석 할 수 있고, 그 宇宙의 法則을 人間이 實踐함을 相生倫理라 할 수 있다. 宇宙의 永遠한 生成法則으로서의 大巡眞理는 相生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요 만일 相剋한다면 相滅할 것이기 때문에 大巡의 道와 相生의 道는 일치하는 宇宙의 法則이며 人間의 法則인 久遠의 人道이다.

여기 天道와 人道의 統一된 原理를 大巡眞理와 相生倫理에서 깨닫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大巡의 眞理를 信奉하는 宗團으로서의 大巡眞理會의 宗教目的과 敎理를 이해하여 보자.

가. 陰陽合德

人生이 出生하는 것도 男女라고 하는 陰陽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듯 宇宙의 萬物이 生成하는 것은 宇宙의 陰道와 陽道가 相合하여 이루어지니 陰陽合德은 天道와 人道의 統一된 原理요 法則이다. 이것은 觀念論的 形而上學的 理論이 아닌 宇宙와 人生의 實像이므로 이 原理를 따르면 人間社會는 男女平等 平和和愛, 가정마다 화목과 사랑이 넘친다는 敎理

이다.

陰陽을 반드시 男女라고만 직역할 것이 아니라 異質的 對立象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나와 나 아닌 것 모두’ 여기에는 ‘나와 너’를 위시해서 ‘主와 客’ ‘스승과 제자’ ‘生産者와 消費者’ ‘企業主와 勞動者’ ‘國民과 國家’ ‘國民과 政治人’ ‘人生과 自然’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對立象은 많다. 일부 哲學者는 ‘哲學’의 定義를 「物我와의 關係를 규명하는 최고의 學問」이라 하는 것도 이유있는 定義려니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조그만 내가 넓고 넓은 宇宙라고 하는 나 아닌 非我的 世界와 對立되었다는 것이므로 나와 마주치는 무수한 對象들과 對立 충돌하며 살아간다면 끝없는 惡戰苦鬪의 연속이 되어 悲劇的 終末을 가져 올 것이다. 나와 對象關係에 있는 사물이나 人間들과 和合하여 살아 간다면 平和와 幸福이 거기에 있으니 ‘陰陽合德’의 眞意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나. 神人調化

이것은 神明世界와 人間世界가 벽을 허물고 相通하여 和愛하고 調和 하자는 가르침인바, 常識的으로는 生死가 有別한데 生者가 死者의 世界를, 死者가 生者의 世界를 넘나들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하겠지만, ‘至誠이면 感天’이라는 말이 있듯, 精誠이 지극하면 神明世界까지 感應 한다는 가르침이며 人生을 태만하고 不誠實하며 거짓되게 살지 말고 誠心 誠意껏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天神과 뜻이 통하여 天의 加護를 받을 수 있고, 이래서 天과 人이 같이 즐겨 和合할 수 있다는 哲理의 교훈이다.

다시 이것을 推論하면 한 人生의 경우도 精神과 肉身의 二重 構造體인 만큼 精神과 肉體가 調和 統一되어야 心身이 健全하여 참된 健康으로 天命대로 살아가려니와 心身이 分열되면 精神의 命令을 肉體가 거부하고 肉體的 欲求가 放任되면 野獸와 다를 바 없게 되어 亂動의 근원이 된다. 이 原理를 人類社會에 적용하면 精神文化와 物質文化의 調和라 볼 수 있고, 現代 歷史의 흐름처럼 世俗的 人生들의 精神價值 疎外와

物質文化 至上主義의 傾向은 危機와 末世로의 急降下가 아닐 수 없으니 神明界가 바라는 바 아니다. 人間界와 神明界가 함께 소망하는 歷史의 進路를 제시함이라 하겠다.

다. 解冤相生

人生으로 태어나 가장 悲劇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恨이 쌓이고 쌓여 冤痛하고 悲痛하게 사는 사람일 것이다. 죽고 싶어도 그 맺힌 怨恨을 풀지 못하면 눈을 감을 수 없어 復讐의 그 날을 기다리느라고 죽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社會는 결코 正常社會일 수 없고 地獄이 무색할 삶의 현장이다. 地獄은 宗教人의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地球村 人類社會도 그 가능성이 濃厚한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日常生活에서 交通地獄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바, 車輛의 洪水 속에서 각 車들이 交通法規를 어기고 좌충우돌 大型事故를 일으켜 수라장이 되었을 때를 표현하는 말이다. 人類社會도 人間 각자가 살아 있는 이상 갈 길이 있는데 마땅히 지키고 가야 할 人道인 倫理를 이탈했을 때 大型 交通事故의 현장을 방불케 하니, 그 곳이 人生의 地獄이 아니겠는가? 자기 良心을 속여 남을 속이고 財物을 詐欺하며 正直하고 誠實한 사람이 언제나 피해를 보고 不誠實하고 詐欺術이 능한 자가 富貴榮華를 누리는 社會는 곧 無道한 社會요 地獄의 길에 入門한 社會다. 이러한 곳에서 살아 가는 正直한 사람은 怨恨의 主人公들이다.

이것을 뜯어 고쳐 正直과 誠實과 努力의 대가가 정확히 보장되고 人間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며 상부상조로 화목하게 살아 갈 것을 목표로 하는 倫理的 教育的 宗旨이다.

라. 道通眞境

이미 여러 차례 「道는 人道요 人道는 곧 倫理」라고 筆者 나름의 倫理에 대한 總論的 定義를 인용하였거니와 ‘道通’에 대한 倫理學的 해석을 하면 ‘倫理가 通함’이다. 倫理는 人生事故로 죽으려는 人生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삶의 實踐哲學이므로 ‘相生의 處方’이다. 그러므로 倫理가

통하는 社會는 相生 相愛 和樂의 世界이다.

기독교인들은 天國을, 불교인들은 極樂世界를 宗教的으로 來世에서 추구하는바, 韓國에서 창도된 進步的 宗教 大巡眞理會에서는 天國과 極樂世界라는 想像의 世界가 무색할 眞·善·美·聖이 확보된 幸福의 樂園을 '眞境'이라 하며 그 곳이 想像界도 來世도 아닌, 現實世界에서 哲學과 倫理 道德 教育的 宗教的 修道로 실현을 기약한 目的境이 道通眞境이다.

이것은 筆者의 倫理學的 해석에 불과하나 宗教學的 '道通'은 이와 다를 것이다. 大巡論의 '道通'은 宇宙와 人生을 一貫하는 理法으로서의 '道'일 것이요 그러한 '道通'은 人類社會만의 樂園化가 아니라 天地 造化를 任意用事하는 天人的 道通君子에 의한 天災地變도 없는 宇宙秩序로 바로잡을 宇宙的 平和 실현이 '道通眞境'이 될 것이다.

이와같이 道通眞境이 될 때 백성이 순박하고 세상이 편안하여 '化民靖世'가 되어 나라마다 '輔國安民'이 되고, 世界的으로 확산될 때 '廣濟蒼生'이 되어, 이것이 '匡救天下'事業이며 이러한 世界가 現實的 '地上仙境'이라 하겠다.

이 모두 相生倫理의 結果인 것이다. 이제 典經 가운데 甌山의 相生에 관한 聲明을 통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상제께서 하루는 「三界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天地를 開闢하고 後天 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하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末世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에 참여하라」고 이르셨도다.』¹⁶⁾

'天地公事'라 함은 '大巡의 道'가 通하게 하기 위한 宇宙秩序의 構造 改革事業이라 하겠고, 이 天地公事를 이룸으로써 萬事가 順理的으로 生成變化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착하고 誠實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應分의 福祿이 따르고, 나태하고 天理에 逆行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罰과 不幸이 따르게 될 것이니 이것이 大巡에 부합된 順理라 하겠

16) 『典經』, 예시 제 17, 314~315면

다. 그러나 先天社會 즉 현재 이전은 公事의 효험이 아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逆機能이 作用하여, 不誠實하고 간악한 무리가 오히려 富貴榮華를 누리기도 하고 善良하고 正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不幸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것은 合理도 順理도 아닌 逆理가 지배하는 社會로써 非理 또는 不調理한 社會라 표현되는 바, 不調理한 社會에서는 善良과 正直은 無能和 愚昧라 疎外되고 不幸한 결과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요령껏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 利益만 취하는 利己主義者가 증가되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이 현명한 生活人으로 알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非生產的으로 無爲徒食하면서 사기 절도 착취 살인강도하는 무리 등이 난무하게 되며 人命 輕視風潮가 만연되는 既成 社會가 도래했고, 이것을 人尊社會로 改革하겠다는 것이 三界 大巡公事 가운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그래서 人尊時代의 主人公된 人間의 권능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先天에는 모사는 재인하고 成事는 재천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成事는 재인이니라.」¹⁷⁾

여기 人類에게 무한한 勇氣와 希望을 안겨주고, 成功과 失敗의 모든 책임이 運命이나 절대적 主宰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本人이 決定權을 장악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고 있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人尊政治哲學인 民主主義 社會가 전개될 것을 예고하였고, 民主化 時代의 人類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가를 敎示함이라는 점에서 깊은 뜻이 있다.

이 점이 대부분의 既成宗教가 ‘天’또는 造物主라는 이름의 ‘絶對者’ 혹은 각 宗派의 信仰의 對象에게 사랑과 恩惠와 加護를 바라는 受動的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人本的·能動的·創造的 宗教임을 입증하며 未來指向的 先進性이 드러나고 있다.

地上仙境도 神이나 天이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힘으로 創造하는 世界인 것이다. 그 創造하는 방법이 相生倫理를 實踐하는 데

17) 『典經』, 교법, 제 3장 35

있다. 그러나 아직도 後天開關氣運을 깨닫지 못하고 先天的 因習을 버리지 못하는 중생들은 苦海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한 실례가 下廻上임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先天에서는 相廻의 이(理)가 人間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度數)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下廻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 후로는 綱倫(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不義)를 감행치 못할 것이다. 그런 짓을 감행하는 자에게는 배사율(背師律)의 罰이 있으리라.」 하셨도다.」¹⁸⁾

여기서 말하는 ‘綱倫’이라 함은 불변하는 倫理紀綱이라는 뜻으로 그것이 곧 相生倫理를 지칭한 것이다.

天國이 부럽지 않는 地上仙境의 새 세계를 創造하려는 마당에서 아직도 先天 舊習인 惡行의 소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찌 되나?

『이제 解冤時代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¹⁹⁾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²⁰⁾

病없는 평화스런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 환자가 들어와서 병균을 떨어뜨리고 가면 전 마을이 전염병으로 황폐화되는 격으로 한 알의 씨앗이 百·千·萬으로 번식하는 것처럼 舊時代의 惡의 씨앗을 뿌리면 새 時代, 새 세상마저 엄청난 擴散作用을 한다.

우리가 새로운 仙境을 創造하자면 善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러면 善의 씨앗 또한 百·千·萬……으로 加速的 擴散作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後天世界에서는 惡의 씨앗을 멸종하고 善만이 번영하여 모두가 聖人처럼 善하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相生倫理 社會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聲明이 있다.

18) 『典經』, 교법, 제3장, 34

19) 『典經』, 교법, 제 3장, 15

20) 『典經』, 교법, 제 1장, 34

『지난 先天 영웅時代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後天 聖人時代는 선으로 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後天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度數)를 짜 놓았도다.』²¹⁾

無惡至善 社會가 仙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實踐論을 들어본다.

『속담에 ‘무척 잘 산다’이르나니, 이는 척(怨恨)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怨恨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되어 갚나니라.』²²⁾

『다만 언덕(言德)을 잘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되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도어 내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와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 삼갈 지니라 하셨도다.』²³⁾

『상제께서 「남을 비방하는데 대해서 사람마다 제 노릇 제가 하는 것인데 제몸을 생각지 못하고 어찌 남의 시비를 말하리오」하고 깨우쳐 주셨도다.』²⁴⁾

이외에도 남을 비방하거나 추호라도 해로운 일은 말 것이며 더욱 怨恨 關係를 이를 일은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남을 비방하여 怨恨을 사게 되면, 상대방에게 복수할 決心이 다져지기 때문에 그것이 惡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되지만 반대로 好意를 베풀다거나 조그만 착한 일을 하면 그 것이 善의 씨앗을 파종하게 되어 상대방은 언젠가 보답할 決心이 다져진다. 이것이 相生倫理의 日常的 實踐이다.

우리가 大巡思想을 研究하는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善도 惡도 大巡環의 法則에 따른다는 因果必然的 科學的 倫理思想이 基底를 이루고

21) 『典經』, 교법 제 2장, 55

22) 『典經』, 교법 제 2 장, 44

23) 『典經』, 교법, 제2장, 50

24) 『典經』, 교법, 제 1 장, 20

있다는 점ियो, 宗教目的을 달성하는 길이 倫理道德의 實踐에 있음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來世에 기대를 거는 既成宗教와 大差를 실감하게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敎示에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先天開闢 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 아직 病劫은 크게 없었나니 앞으로는 病劫이 온 세상을 뒤덮어 누리에게 참상을 입히되 거기에서 구해낼 방책이 없으리니 모든 기이한 법과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醫統(醫統)을 잘 알아두라. 내가 天地公事를 말아 봄으로부터 이 동토에서 다른 겁재는 물리쳤으나 오직 病劫만은 남았으니 몸 돌이킬 여가가 없이 洪水가 밀려오듯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²⁵⁾

앞으로 病劫이 있어서 洪水가 밀어닥치듯 몸 돌이킬 틈이 없게 될 때 살아날 길은 ‘醫統’이라고 하였다. 그 醫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모든 甌山宗團의 숙제이기도 하다. 왜 東洋人이면 宗教 有無를 막론하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宇宙 人生의 達觀된 境地’로서의 ‘道通’이라 하지 않고 ‘醫統’이라 하였을까?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道通’에 이르는 前 단계 조건으로 必히 거쳐야 할 과정이 ‘醫統’을 갖추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博士’라고 하는 學者의 최고 자격을 취득하자면 모든 소요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綜合 考査라고 하는 博士 豫試를 통과한 자에게 論文 제출 자격이 있고 論文 심사에 합격해야 博士가 되는 것이다. 또 한 예로 아무리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재 몸이 허약하여 깊은 病에 걸렸다면, 病을 고쳐 健康을 回復해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大成할 것이요, 健康을 回復하지 못하고 중도에 生命을 잃게 되면, 成功 전에 萬事가 끝나는 것과 같이, 博士자격 취득에 있어서 綜合考査 통과, 人間 大成功에 있어서 健康 확보가 醫統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본다.

이제 甌山의 遺書를 통하여 ‘醫統’을 알아보기로 한다.

25) 『典經』, 公事, 제1장, 36

『상제께서 거쳐하시던 방에서 물이 들어 있는 흰 병과 작은 칼이, 상제께서 화천하신 후에 발견되었는데 병마개로 쓰인 종이에

「吉花開吉實 凶花開凶實」

의 글귀와 다음과 같은 글들이 쓰여 있었도다.

「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無藥 小病或有藥

然而大病之藥 安心安身

小病之藥 四物湯八十貼

祈禱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至氣今至願爲大降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

至氣今至四月來 禮章

醫統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病勢

有天下之病者 用天下之藥 厥病乃愈

聖父

聖子 元亨利貞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生死辦斷

聖身

大仁大義無病

三界伏魔大帝神位遠鎮天尊關聖帝君

知天下之勢者 有天下之生氣

暗天下之勢者 有天下之死氣

……」²⁶⁾

이 내용을 정리하면 병에는 大病·小病이 있는바, 小病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나 大病은 약물치료가 불가능하고 오직 祈禱를 드려 修道하는 것뿐이다. 오늘날 天下의 大小病勢를 진단한 결과 ‘無道病’이라 보고 그 處方은 ‘有道’라고 내렸다.

26) 『典經』, 행록, 제5장, 38

天地間에는 元·亨·利·貞이라는 大道가 있고 人間界에는 忠·孝·烈이라는 大道德이 있는데, 꽃이 피어야 할 봄날에 눈이 온다거나 무성하게 성장해야 할 여름날에 서리가 내리면 天地道가 逆行하여 萬生物이 死滅하듯, 人間界의 基本秩序를 바로잡을 忠·孝·烈을 망각하면 여름날에 찬 서리가 내리듯 人間 과멸을 초래한다는 교훈이다.

이러한 破局에서 處方은 ‘醫統’을 찾는 일이고 그 醫統은 다름 아닌 ‘有道’인바, ‘有道’란 무엇일까?

이미 筆者는 倫理學에 대한 總論的 定義에서 ‘人道の 科學’이라 내려 ‘倫理’를 「人間이 마땅히 지키고 가야 할 길(道)이 있어(有道) 그 길을 가야 함」이라 하였고, 各論的 定義 넷째번 字意的 側面에서는 ‘倫’자와 ‘理’자는 人間과 人間이 서로 맺고 있는 ‘精神的 關係’요 ‘마음의 길’로써 두 글자가 결합한 ‘倫理’는 父子間의 關係, 師弟間의 關係등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縱的으로 橫的으로 關係 없는 곳이 없고, 關係가 있음을 自覺하였다면 곧 마음과 마음이 통했음을 의미하며, 그것이 ‘有道’인 것이다. 따라서 ‘有道’는 곧 ‘倫理’임이 증명되었다.

人類가 利己主義的 對立으로 鬪爭을 일삼으면 自滅을 초래하고 이 危機에서 救援받을 길은 「내 마음을 그대가 알아주고 그대 마음은 내가 헤아려, 彼此 원치 않는 바는 자제하며 서로 소망하는 바는 서로 도와서 나와 그대가 함께 잘 살아가는 ‘倫理’특히 그러한 倫理는 ‘相生倫理’뿐」이다.

여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緒論 部分에서 史上 최고의 歷史學者요 時間의 醫學者인 토인비가 末世的 危機로 질주하는 現代文明을 ‘倫理 缺乏症’이라 진단하고 回生の 處方은 ‘倫理의 回復뿐’이라 한 것과 너무나 일치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科學文明이 현재의 몇 갑절 발달하여 經濟的으로 富益富한다 치더라도 倫理가 결여된다면 가진 자일수록 더 갖고자 物質 爭奪戰으로 自然界와 人間界를 과멸로 몰고 갈 것이 明若觀火하다.

새로운 歷史期의 새 세상, 道通眞境의 世界가 열리자면 物質 爭奪로 野獸化되어가는 중생들을 人間改造하는 道德과 ‘道’즉 ‘倫理’가 ‘通’하는

道通世界가 前提條件이요, 倫理가 健全해야 救濟蒼生되어 地上天國도 기약된다는 大巡眞理의 敎理는 이래서 倫理의 正鵠을 꺾었었다.²⁷⁾

(3). 現代와 相生倫理

우리가 살고 있는 現代社會의 人間關係는 마치 기름이 마른 機械가 돌아가는 것처럼 거칠고 삭막하여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따사로운 人間味와 人間美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日常的인 人間關係라 치더라도 人爲的 集團인 各種 社會團體의 경우 아무리 利益社會의 原理가 作用한다고 하나 內外的으로 각자 자기 중심 對立이 날카롭다. 이것이 個人主義를 바탕으로한 民主主義社會의 精神生理라고만 규정할 수 없다.

筆者의 人生觀으로는 個人은 個體이면서 全體와 有機적으로 結束된 不可分の 共同體內의 主體者로 알고 있는바, 그 有機作用은 精神紐帶 즉 ‘마음의 길’이 開通함으로써 가능하며 그것이 곧 倫理임을 다각도로 입증하였다. 이 사실을 自覺하지 못하면 兩極에 치우쳐서, 個體 本位로만 살거나 아니면 全體 속에 자신을 잃어 버리거나 둘 중 하나로 살아가게 된다. 모두 옳지 못한 삶이며 不幸의 길을 걷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兩極的 삶의 방식을 확대하면 極左·極右의 政治 이데올로기 (Ideology)를 고집스럽게 死守하려는 極端主義者의 悲劇을 초래하게 된다.

極右는 自由民主主義를 빙자하여 자기 능력껏 벌어서 자기만 잘 살려는 利己主義的 獨占財閥이 되고, 極左는 健全하게 富를 축적하여 풍요한 文化生活을 하는 사람들까지 民衆을 착취하는 人類의 敵으로 보는 否定主義者가 되므로, 모두가 本人을 위해서나 社會를 위해서나 不幸한 일이다.

自由民主主義가 利己的 爭奪主義로 변질되면 萬人萬敵의 社會가 되어 서로 ‘내가 살기 위해서 너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수 없다. 社會主義가 全體主義를 고수하여 全體的 平等을 強行할 때 上向平等이 아닌 下向平等이라는 惡平等社會가 되고, 時間的으로나 空間的으로 階級을 전제로

27) 拙著, 『民主倫理學要論』

제5장 韓國倫理思想의 探究

제5절 龜山의 相生倫理思想 449~460면 참조

태어난 人間들 모두를 타도의 對象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人間 敵對者가 된다. 唯物辨證法을 신조로 하는 社會主義는 鬪爭의 論理를 基底로 하는 한, '鬪爭이 없는 곳에 發展이 없다'고 闡명한 辨證法의 始祖 헤라크레이토스(Herakleitos, BC.541~475)의 BC 6세기적 生成論을 불멸의 眞理로 信奉하여 끝없는 鬪爭을 強行하는 그 自體가 悲劇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 世界는 아직도 이 두 政治 이데올로기가 兩立되어, 共產主義는 1990년 74년의 時效가 끝나 終末을 告하였다고는 하나 世界 各國 도 처에 잠복하여 再起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그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實證處가 韓半島요 그래서 祖國은 분단된 채 統一은 기약없이 세월만 흘러간다. 統一運動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면 北韓의 赤化統一 위 한 重武器 生産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과 北韓의 指令에 따라 南韓內에서 '民族은 하나 祖國도 하나'의 구호를 외치며 赤化統一의 前衛隊로 暴力鬪爭을 일삼는 韓總聯등 左傾學生들이다.

本論文이 政治論文이 아니라 宗教哲學論文이기에 政治問題에 깊이 관여 할 성질의 것은 아니나, 우리가 살고 있는 政治社會 現實問題를 떠나서 純粹宗教論만 언급되면 現實을 도외시한 理念的 幻想的 宗教論이 될 것이므로 病理的 現實 救濟策으로서의 宗教를 논하자니 짧게나마 政治이데올로기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K.Marx 1818~1883)에 의해서 창도된 마르크스主義라는 共產主義에 대한 理論的 研究는 몇 백권의 책으로도 다 했다고 할 수 없으나 모든 理論은 접어두고 歷史的 證據하나 만으로 그것이 眞理가 아님이 1990년 共產宗主國 소련의 해체와 東歐 共產諸國의 脫共產主義로 證明되었고, 共產主義가 全 人民의 經濟的 富를 균등하게 보장해 주는 理想 政治가 아니라는 사실이 殘存 共產國인 北韓이나 쿠바가 극도의 貧民國으로 전락된 것과 地球上에 가장 人口가 많고 풍부한 賦存資源을 保存한 넓은 국토에 자리잡고 있는 中國의 경우 그 수十分의 一도 못되는 自由陣營小國家의 經濟力을 따를 수 없어 後進國圈에서 沈滯狀態에 빠져 있다는 物證만으로도 理論的 찬양이나 비판은 紙面의 낭비가 될 것이다.

특히 北韓의 貧困相은 많은 人民들이 餓死지경에 이르러 世界人의 근심

꺼리가 되어 있는 現實에서, 北韓式 統一이 된다면 南韓까지 전 한반도가 最貧民地帶化 되자는 말 밖에 되지 않는바, 眞理를 탐구함이 主業인 大學生 일부가 ‘韓國大學生總聯盟’ 약칭 ‘韓總聯’의 이름으로 이 나라 首都 한복판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장기적 大型 暴力시위를 금년(1996년) 8.15 慶祝日을 전후하여 強行하였다는 사실은 몇가지 結論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첫째, 宣戰布告 없는 제2의 6.25動亂의 前哨계릴라戰을 휴전선 이남에서 試圖함 이었다.

둘째, 暴力시위에 가담한 자는 전원 學生의 身分을 포기한 學徒가 아닌 暴力徒, 줄여서 暴徒들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셋째, 그들은 진실한 大學生임을 포기한 暴徒이므로 그들의 思想動向은 참된 眞理가 아니라 延世大學을 廢墟化한 物證처럼 思想도 民族主體 正統 思想이 아니라 祖國을 廢墟化하려는 廢棄되어야할 時效 끝난 낡은 思想이다.

넷째, 그러한 廢棄되어야 할 낡은 思想으로 暴力을 일삼는 자들은 이미 廢棄되어야 할 廢物的 存在됨을 滿天下에 公開하였다.

다섯째, 새 歷史 새 세상인 眞境仙境을 열어야 할 마당에 그러한 낡고 병이 깊어 廢物化된 人生은 멀리해야 한다.

여섯째, 人間學인 倫理 道德學的 側面에서 보아도 學生이기 전에 人間임을 포기한 非情한 冷血動物이요, 殘忍無道한 反社會的, 反人類的 가공할 破壞分子라는 점에서도 이 세상 어느곳 하나 쓸모없는 廢物的 存在들이다. 왜냐 人間이 他動物과 구별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倫理와 道德을 지키기 때문이요, 道德의 第一步는 孝인 바, 그들은 애절한 父母의 설득을 냉혹히 거부한 最惡의 不孝子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그러나 相生救援의 宗教 大巡教理라는 관대한 입장에서는 구제 불능의 主動者를 제외한 부화뇌동자는 相生倫理의 教化로 人間性을 改造해야 한다.

즉 사상전향인 精神開關으로 人間改造하여 救濟蒼生으로 輔國安民에 기여케 하자는 것이다.

다음 自由民主主義는 올바른로 진행하는가?

經濟面에서 生産所有의 自由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왕성한 所有慾의 放任은 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초래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자’의 날카로운 對立은 相互 갈등 증오심이 첨예화하여 ‘人間愛’가 멀어져 가고 충돌과 鬪爭의 소리가 그칠 날이 없다.

그 실례의 대표적인 것은 각 大學街에서 ‘政治의 民主化’ ‘大學의 民主化’ 實踐運動은 오직 ‘鬪爭’뿐이라 외치고 大字報가 난발하여 大學은 鬪爭의 본거지가 아닌가 의심케 함이다. 그래서 尊敬받아야 할 스승이 사랑해야 할 제자로부터 暴言 暴行을 당하고 배척 당하는 수모가 非一非再하니 이것이 典經에 의하면 大巡眞理에 逆行하는 ‘背師律’을 범한 背恩忘德罪가 아닐 수 없다. 無道한 세상의 한 단면이다.

우리 産業社會뿐 아니라 先進民主國家에서도 가장 심각한 問題가 企業體內에서 수시로 야기되는 勞使紛爭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年中 行事처럼 벌어지고 있는 地下鐵 勞使紛爭, 某某 企業체의 重工業 精密工業 自動車工業 醫療業界 등의 勞使紛爭은 國民 모두에게 失望의 度를 넘어 환멸을 느끼게 한다.

각 職場마다 勤勞者들이 勞動組合을 결성하고 그들의 權益을 爭取하기 위하여 일으키는 勞動運動은 民主主義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형식적 조건은 열악한 勞動環境 改善을 앞세우지만 주된 요구조건은 勞動時間 단축과 賃金引上幅의 확대에 있다. 勞動조건과 임금이 比較的 낮은 중소기업보다 그것들이 좋고 임금도 높은 대기업체의 勤勞者들일수록 數的 優勢를 기화로 大的 시위와 양보에 인색한 협상의 長期化는 罷業으로 이어지기가 예사이다.

韓國의 産業經濟界가 성장도상에서 정체 또는 下降하며 競爭力을 잃어가는 가장 큰 原因이 高賃金 때문이라는 사실을 世界經濟界가 인정하고 있다. 임금이 인상되면 원가상승으로 제품가격이 높아져서 소비자들의 生活經濟를 압박하고 對外的으로 貿易競爭에서 不利한 것은 당연하다. 勤勞者들은 過去 非民主時代의 君主가 그들의 企業主라 생각하고 民主化된 現實에서는 자기들이 企業체의 主이라 생각하는지, 자기들의 利益과

權利를 팽창하는 것이 産業社會의 民主化로 알고 있다. 기업은 엄청난 손실로 도산지경에 빠져도 그들의 利益만 챙기려는 集團利己主義가 産業民主主義는 아니다. 특히 大都市 서민대중의 交通手段인 地下鐵에 종사하는 勤勞者들은 다른 어느 직종보다 初賃金부터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해마다 임금인상 위한 쟁의의 앞자리를 차지하여 市民의 발을 묶어 놓으려 하는 처사는 그들 이외에 누구하나 동조자를 얻지 못할 것이다.

또 의료업에 종사하는 勤勞者들의 罷業은 환자 人命을 담보로 자기들 利益 추구에만 급급하는 처사로서 仁術이라는 本然의 업무에 逆行하는 자기모순을 犯함이다.

가장 심각한 勞使紛爭 가운데 하나로 敎員勞組의 鬪爭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敎員도 봉급이라는 임금을 받고 敎育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勤勞者라 하겠으나 勤勞者 중에는 수많은 직종의 勤勞者가 있어서, 集團을 조직하여 權益伸張을 위하여 鬪爭이라는 最惡의 手段을 동원해서는 안 될 高級勤勞者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 高級勤勞者가 바로 敎育者들이다. 왜냐하면, 敎育이라는 文化事業은 人生도 出生된 自然狀態로 성장하면 他動物과 구별될 수 없는 動物의 일종에 불과한 것을, 敎育으로 高級化하여 萬物의 靈長되게 하는 後天的 人間改造事業이므로 그것을 天職으로 하는 敎育者는 ‘人間改造 事業者’ ‘人間改善者’요 공인된 ‘先覺者’이며, 그래서 통상적으로 ‘先生님’이라 通稱한다. ‘先生님’은 先導者·先覺者·模範人士·示範人物의 뜻이 있어 社會적으로 尊敬의 對象이 된다. 그러한 聖職者가 열악한 敎育環境 改善·敎權死守·學園民主化의 미명으로 선배 敎育者에게 항의 도전하며 머리에 붉은 티, 검은티를 두르고 鬪爭을 외치며 교단 밖으로 뛰쳐나와 抗爭하는 모습은 과연 示範人士 模範人物像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民主主義의 이름이라면 正當化 되는가?

청순한 靑少年들에게 그것을 民主主義라고 시범 보이는가?

民主主義는 鬪爭으로 성장하는 政治制度가 아니라 人權을 최고로 존중하는 人尊哲學이요 相互 對話와 妥協으로 鬪爭이라는 極限狀況을 피하여 共榮을 누리자는 平和의 哲學이다.

오늘날 '民主人士'하면 '鬪爭의 勇士'로 상징될 만큼 民主正軌道를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教育界에서도 敎員勞組 指導級敎員은 鬪爭에 용감한 示範人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그런 教育者가 靑少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하면 教育의 危機임을 실감케 한다. '精神 汚染'이란 바로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 때문에 敎員勞動者는 분쟁도 鬪爭도 해서는 안 될 聖스런 勞動者이기에 敎權이라는 이름으로 利權爭取하는 集團 利己主義와 조속히 결별해야 한다.²⁸⁾

民主化 時代를 당해서 나라마다 個人은 個人대로 職場은 職場대로 大小 利己主義가 만연되어 이것이 世界化될 때 地球村은 國際利己主義 世界化 時代가 될 것이다. 그 징조가 現代는 自由貿易主義 時代라는 말 속에 함축되었으니 전술한 바 있는 經濟熱戰時代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自國利益을 위해서는 友邦도 敵, 敵도 友邦, 敵도 敵이 되는 無秩序한 國際社會는 치열한 經濟戰爭場으로 弱肉強食하는 非情한 世界가 될 것이다. 이 모두가 西洋文化의 基底에 깔려있는 鬪爭相剋의 論理 二律背反的 辨證法的 歷史觀에 의거한 政治哲學이 世界化되어 社會主義陣營이건 右派 自由民主陣營 모두 鬪爭的 發展論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鬪爭도 경우에 따라서는 發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을 유일한 방법으로 착각, 영구히 지속하려 한다면 終局은 果滅일 뿐이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果滅적 終局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하는 二律待對의 論理에 입각한 陰陽合德의 道 大巡思想인 相生倫理'가 절실히 요청되고 이 思想이 世界化될 때 地球村은 樂園眞境이 될 것이다.

28) 拙著 『民主倫理學 要論』, IV. 職場生活의 倫理

603 ~ 607면 1. '勞使紛爭 解消를 위하여'

607 ~ 614면 2. '敎員勞組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참조

Ⅲ. 結 論

現代를 開放化時代·世界化時代가 개막되었다 하여 거창한 歷史가 새로이 전개되는 느낌을 주나 地球도 宇宙의 次元에서는 微視體에 불과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不遠 60억 가까운 人生들은 微視世界의 微生物에 지나지 않는다는 書頭로 本論文은 시작되었다. 그 의도는 人生을 地球라는 조그마한 삶의 터전에서만 보지 말 것이며, 시야를 넓혀 宇宙라고 하는 巨視世界의 터전에서 人生을 다시 발견하여 眞理의 世界 또한 小小한 주변의 경험사실에 국한시키지 말고 宇宙와 人間을 연계하여 파악해야 天·地·人 三界를 달관하는 大巡眞理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一萬年 전까지 소급할 證據없는 人類의 歷史가 現今에 이르러서야 겨우 東西文化의 合流期에 접어든 것을 보면 조그만 地球村 人類의 統一歷史期의 正軌道에 진입하였다는데서 世界化 時代의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새로운 歷史의 場이 열리는 출발시점 方向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가 人間에 의해서 人間을 위한 文化의 創造과정이라는 歷史가 人間을 오히려 알지 못하고 主體文化를 從屬視하며 從屬文化를 主體文化이상 偏重하는 路線에 기울고 있다.

둘째 統一文化期로서의 世界化時代의 참 뜻을 모르고 東洋人들은 西洋의 先進的 從屬道具文化에 추종하여 東洋의 西歐化가 곧 世界化로 착각하는 新版慕西 事大主義가 만연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歷史의 추세라면 世界化된 未來像은 발달된 道具들이 善用 아닌 惡用으로 逆轉, 主體者 人間은 道具들에게 희생의 제물될 확율이 높다.

넷째 나라들마다 經濟第一主義 尖端科學 競爭이 치열의 도를 加速하는 世界化時代는 自由貿易主義라는 國際利己主義的 經濟戰爭으로 弱肉強食하는 새로운 悲劇의 場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상황의 人類들은 個人은 個人대로 利己主義, 集團은 集團대로 集團利己主義, 國家들 간에는 國際利己主義로 世界가 人間性을 찾을 수 없는 無秩序와 혼란의 場이 될 것이다.

여섯째 이처럼 어두운 世界化될 未來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人間改善에 주력하여 온 東洋의 主體文化를 現代的으로 再定立, 잘못된 歷史의 進路를 바로잡는데 世界가 동참해야 한다.

일곱째 그러한 東洋의 傳統的 正統主體文化는 무엇일까?

그것은 儒道 佛道 仙道라는 古典的 東洋精神文化가 韓國의 人尊思想으로 통합된 大巡相生倫理思想으로 대표된다.

이것이 本論文의 總論的 構想이었다. 本論에서는 甌山은 누구이며 왜 降世하여 三界를 大巡하고 大巡思想을 선포하였는가 典經에 의거하여 살펴보고, 道通하여 眞境에 이르는 實踐方法論으로서의 相生의 道 즉 相生倫理를 研究하기 위하여 ‘倫理’와 ‘道德’에 대한 종합적 고찰과 東西倫理思想의 차이점을 알아 보았다. 거기에서 西洋의 倫理 道德의 概念的 保守성과 現代倫理思潮의 非實踐的 理論分析 위주에서 倫理 本然의 目的과 隔差가 커 감을 알았다.

人類가 有史 以來 倫理와 道德을 啓發하여 온 目的은 他動物 以上の 값진 삶과 하나의 地球에 共生하는 人類가 평화롭게 共榮을 누리며 살아 갈 處方을 강구해야 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創出된 것이라면, 그것은 어느 특정 學者만의 學問이 아니라 全人類의 終身必須處世哲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어떤 倫理思想보다도 宇宙와 人生을 一貫하는 理法으로서의 大巡眞理의 實踐哲學인 相生倫理를 더 하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왜냐 하면 倫理라는 것 自體가 共生하는 人類가 幸福하고 平和롭게 共榮의 삶을 누리자는 것 그 以上 바라는 것이 아니기에 ‘相生의 道’이고 보면 倫理의 核心은 相生倫理 속에 집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實踐哲學的 方法論을 바탕으로한 大巡眞理의 宗教的 敎理는 既成 어느 宗教보다 進步的이며 世界化時代의 어두운 未來에 밝은 전망을 제시하여 주는 希望의 宗教라 하겠다.

宗教를 갖고 앎 갖고, 또 갖되 어느 宗教를 택할 것인가는 나라마다의 憲法에 보장된 信仰의 自由라 치더라도, 萬人 누구나 宗團 大巡眞理會의 典經을 정독하고 나면 宗教를 포교하려는 의도보다 人生을 바르고 참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人生處世 敎育哲學을 감명깊게 받았다는 良心의 고백이 자기

도 모르게 나올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 만큼 철저한 倫理와 道德의 實踐을 강조하며, 目的하는 人類平和가 보장된 地上仙境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西洋의 思想文化史上 가장 큰 결실은 民主主義라는 政治 哲學을 물려 준 것인바, 그것은 底邊에 辨證法이라고 하는 鬪爭 相剋의 論理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左派인 社會主義 共產主義와 右派인 自由民主主義도 진정한 平和의 哲學이 못되어, 共產陣營의 階級鬪爭과 人權彈壓, 經濟沈滯, 自由陣營의 貧富의 隔差 확대에 따른 갈등과 相互反目, 利己主義의 亂立으로 인한 一身一家의 사치 향락 榮華를 경쟁하는 혼탁한 社會像을 야기하고, 政治 發展은 鬪爭에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西歐式 民主主義는 人尊哲學도 平和哲學도 못 되는 理念論이나 幻想論에 기울고 있으며 未來를 암담하게 하고 있다. 東洋人까지 이렇게 잘못되어 감은 근본적으로 二律背反 相剋의 論理인 辨證法的 思考方式으로 의식화 즉 精神汚染 되었기 때문임을 再三 탓하자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러한 西歐式 逆理的 思考方式부터 뜯어 고치는 精神革命(精神開關)이 있어야 하겠으니, 그것은 順理的 思考方式이자 生成 相生法則인 陰陽 合德 調和의 原理가 相通하는 世界化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人間改造·改善事業이자 國家의 百年大計라고 일컬어지는 敎育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敎育中에서도 主體敎育이라 할 人間敎育의 核心인 倫理道德 敎育이 올바르게 실시되어야 한다. 西歐式 理論分析 중심의 倫理敎育이 아니라 ‘人間이 서로(相) 잘 살(生)수 있는 實踐處方으로서의 相生倫理敎育을 全 人類의 平生必須科目으로 우리나라부터 보급하는 일이다. 現 政府는 敎育改革委員會가 있다하나 人間을 改善 改革하자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大學入試 改革 등 小小한 制度面에 치우쳐 敎育 本然의 大 目的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점 기대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

過去 1970대 초 大學에서 ‘國民倫理’라는 이름으로 倫理敎育이 必須科目이 되었으나 左傾學生들의 大學의 民主化·自由化를 외치는 거센 시위앞에 六共和國은 굴복, 倫理敎育 존폐를 自由化에 一任한 즉 거의 모든 大學들이 오늘날 폐장을 택하고 있다. 國語, 英語, 數學 등 道具科目과 經濟敎育, 尖

端科學技術教育 등 手段價值教育에 焦點을 맞추다보니 人間을 改善하는 人間學인 倫理學 目的價值教育은 焦點圈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게 되어 가는 것이 오늘의 教育실태이다.

이런 때를 당하여 大巡眞理會 宗教人들은 혼탁한 社會를 바로잡고 참된 世界化時代 새 歷史를 創造할 의무의식에서 서로가 잘 살 相生倫理의 實踐 示範人 역할을 하여 萬人을 感服시켜 相生의 道에 스스로 入門토록 하는 教育者的 포덕활동을 전개하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布德天下로 救濟蒼生하여 道通眞境의 世界化時代가 열리기 바란다.

【참고문헌】

- | | | | |
|------------------|----------------------|--------------------|------|
| 대순진리회 교무부, | 『典經』 | 대순진리회 출판부, | 1974 |
| 李宣根 著, | 『韓國史』 | 震檀學會 | |
| 金龍德 著, | 『朝鮮後期思想史』 | | |
| 李敦化 著, | 『天道教 創建社』 | | |
| 崔載喜 著, | 『倫理學原論』 | 白映社, | 1953 |
| 金泰吉 著, | 『倫理學』 | 傳英社, | 1992 |
| 金永喆 著, | 『倫理學』 | 學研社, | 1983 |
| 安鍾沄 著, | 『民主倫理學要論』 | 螢雪出版社, | 1993 |
| 安鍾沄 著, | 『世界化時代의 新道德 政治 哲學研究』 | | |
| | | 學文社, | 1996 |
| 金益達 編, | 『哲學大辭典』 | 學園社, | 1973 |
| 韓國國民倫理學會 編, | 『國民倫理』 | 螢雪出版社, | 1982 |
| 韓國國民倫理學會 編, | 『國民倫理研究 13号』 | 螢雪出版社, | 1982 |
| 和達哲郎 著, | 『人間の學としての 倫理學』 | 岩波文庫, | 1936 |
| 矢野羊吉 著, | 『新版 倫理學の 根本問題』 | 福村出版社, | 1974 |
| 片山正道 著, | 『倫理學』 | (日本)理想社, | 1942 |
| 高山岩男 著, | 『道德の危機そ新倫理』 | (日本)創文社, | 1970 |
| Dewey and Tufts, | 『Ethics』 | Henry HoldCompany, | 1932 |
| Austin Fagothey, | | 『Right and Reason』 | |

1967